



사회복지법인 월정사회복지재단
강릉종합사회복지관

강릉종합사회복지관 2025 사업보고서

C O M M U N I T Y I M P A C T



미래 연대 나눔 배움 행복 성장 회복

강릉종합사회복지관
2025 사업보고서

목차

01	기관장 인사말	4	10	실천스토리	22
02	미션 및 비전	5		회복 위기가정 사례관리, 초록기억 시나미카페, 빈집노후주택개선사업, 서비스 지원 및 연계, 맞춤형 지원, 귀환납북자 사회적응 지원사업	26
03	미래설계워크숍 및 중장기 발전 과정 안내	6		성장 중학생 동아리 서포터즈, 드림드림, 단오맞이 청소년가요제, 여름방학 프로그램, SO-WANT	34
04	근거기반 실천 원칙	8		나눔 산타 프로젝트, 후원 캠페인, 한끼드림, 늘해랑돌봄벨레방, 장수식당, 동절기 지역돌봄사업, 가정의달 오!해피데이, 명절정서지원서비스	44
05	2025 한 눈에 보기	9		행복 프로그램 전시회, 교육문화 프로그램, 건강관리 프로그램, 문화가 있는 우리동네, 행사기획단, 늘푸름환경지킴이, 우리동네 1촌돌봄단	56
06	연간 실천 실적 총괄표	10		연대 주문마루 마을활동가, 식생활 돌봄지원, 유대한라이프, 주민동아리 활동지원, 강남동 마을관리소, 주민모니터링단, 우리동네 주민 만나기	66
07	2025 뉴스룸	11		미래 우리동네 그린러너, 마을재난대응복지사업, 가뭄대응사업	76
08	2025 나눔 전달식	16	11	함께 걷는 이웃들	82
09	재정보고	20	12	후원금·품 보고	84
			13	기관개요	86

01 기관장 인사말

새로운 30년의 시작, 변화와 혁신으로 그리는 행복한 동행

안녕하십니까.

우리 강릉종합사회복지관의 2025년 한 해를 정성껏 담아낸 연간 사업보고서를 통해 지역 주민과 후원자,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보고서는 강릉종합사회복지관에 있어 그 어느 때보다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첫째, 2025년은 강릉종합사회복지관의 개관 30주년을 맞이하며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해 온 서른 해의 역사를 집대성한 해였습니다. 지난해 우리는 30주년 기념 사업보고서를 별도로 발간하며 지나온 길을 되돌아 보았습니다. 그 소중한 성찰의 시간을 바탕으로, 2025년 한 해 동안 현장에서 발로 뛰며 일궈낸 구체적인 실적과 변화의 기록을 이번 연간 보고서에 충실히 담았습니다.

둘째, 2025년은 우리 복지관의 다음 5년을 설계하기 위해 전 직원이 마음과 뜻을 모은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월정사복지재단이 2026년부터 다시금 운영을 맡게 됨에 따라, 보다 전문적이고 현실적이며, 지속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26-2030 5개년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 직원들이 밤낮으로 고민하며 만든 이 로드맵은 단순한 계획을 넘어, 급변하는 복지환경 속에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가치와 혁신적인 비전을 담았습니다.

셋째, 2026년 올해는 그 원대한 계획이 본격적으로 실행되는 첫해입니다. 우리는 지난 30년의 든든한 토대 위에, 수립된 발전 계획을 하나하나 실천하며 지역사회 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가겠습니다. 주민 한 분 한 분의 삶이 더 따뜻해질 수 있도록 소통의 문을 넓히고 투명하고 정직한 운영으로 신뢰에 보답하겠습니다.

본 보고서에 담긴 내용들은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2025년의 성과를 함께 축하해 주시고, 2026년부터 시작되는 우리 복지관의 새로운 도약에도 따뜻한 동행으로 함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릉종합사회복지관장 김 미 현

02 강릉종합사회복지관이 마을의 진짜 변화를 만드는 방법

미션 및 비전

미션 | 모두의 일상을 연결하여 따뜻한 변화를 만든다.

- 비전**
- ① **단기목표** 주민과 연대하여 마을에서 실천하는 복지관이 된다.
 - ② **장기목표** 모두의 일상이 머물 수 있는 편안한 커뮤니티, 공간을 만든다.
 - ③ **조직목표** 지역 복지를 가장 아름답게 디자인하는 멘토 복지관이 된다.

- 핵심 가치**
- ① **전문성** 끊임없는 역량 개발과 깊이 있는 지식으로 주민의 복지 문제에 전문 대응
 - ② **성장** 주민과 조직 모두가 함께 배우고 변화하며 지속 성장
 - ③ **신뢰**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로 주민에게 신뢰받는 복지관 조성
 - ④ **소통** 열린 마음과 공감적 자세로 주민과의 적극적 소통을 통해 지역 연대 강화
 - ⑤ **추진력** 변화를 주도하고 아이디어를 실제로 구현

- 전략 목표**
- ① 모든 세대가 안전하게 돌봄과 복지를 누리는 지역사회
 - ② 주민이 스스로 이끄는 참여와 연대의 공동체
 - ③ 배움과 문화가 세대를 넘어 흐르는 마을
 - ④ 모두가 실천하는 지속 가능한 환경·기후 위기 대응
 - ⑤ 튼튼한 기반과 체계적인 운영으로 미래를 열어가는 복지관

- 실천 체계**
- ① 지역이슈 분석 및 욕구조사
 - ② 사업 아이디어 구상 및 설계
 - ③ 계획에 따른 사업 준비
 - ④ 사업추진
 - ⑤ 사업평가(성과 측정, 반기별 평가, 직원평가, 이용자 평가, 내·외부자문, 중장기 발전 평가)
 - ⑥ 외부 감사(회계 감사, 사업 평가) 및 성과 발표(우수사례 및 실천)



03 30주년을 맞아 마을의 변화에 발맞춰 움직이기

미래설계워크숍 및 중장기 발전 과정 안내

*자세한 사항은 아래 QR코드를 스캔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5년, 서른 살을 맞이한 강릉종합사회복지관이 새로운 질문 앞에 섰습니다.

“우리는 왜 여기 있는가?”

매일 바쁘게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달리고 있는 방향이 옳은지 함께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2025년, 전 구성원이 참여하는 미래설계워크숍이 시작되었습니다.

워크숍은 총 4차에 걸쳐 진행됐으며, 각 부서별 토의도 병행했습니다. 먼저 강릉의 인구 변화, 초고령사회, 지역소멸, 사회적 고립 등 지역 현실을 데이터와 실천 경험으로부터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나누어 “복지관이 없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붙들고 씨름했고, 각 부서가 쌓아 올린 생각들을 전체 회의에서 하나로 모아내는 깊은 협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 끝에서 구성원 모두의 마음을 움직인 문장을 만났습니다.

“모두의 일상을 연결하여 따뜻한 변화를 만든다.”

미션과 함께 비전과 핵심가치도 도출하였습니다. 이 나침반을 바탕으로 복지관은 현재 5개 성과 목표, 8대 중점과제를 담은 2026~2030 실행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냥 선언이 아닌 실천으로.

앞으로 매일 현장에서 강릉종합사회복지관은 계속 걸어가겠습니다.

기본사항 **목적** 강릉종합사회복지관 30년 조직 가치 분석과 중장기 계획 수립
대상 강릉종합사회복지관 직원 및 복지정책과 희망복지팀
일정 2025년 6~9월

기대효과 ① 기관의 미션, 비전, 핵심 가치 구체화
 ② 중장기 사업 및 시설 운영 방향 기반 마련

회기별 프로세스

구분	일정	내용
사전준비	5월 30일(금)	• 워크숍 취지 및 목적 합의 • 기대 산출물 결정
1차	6월 9일(월)	• 30년 돌아보기 • 외부 환경, 미래 이슈 살펴보기 • 미션, 비전, 핵심가치 개념 이해
2차	6월 10일(화)~6월 30일(월)	• 미션 언어 만들기 • 비전 그리기 • 핵심가치 살펴보기
3차	7월 8일(화)	• 부서별 토의 결과 공유 • 핵심 언어 정리 및 초안작성, 최종점검 • 핵심가치 행동규범 작성 및 실행약속 도출
4차	7월 14일(월)~9월 26일(금)	• 미션 및 비전 공감도 점검 • 부서별 중장기 계획 • 핵심 가치 내재화 및 부서별 행동규범 합의
계획수립	10월 중	• 최종 미션, 비전, 전략 목표 등 수립 • 중장기 계획 수립 • 2026년 사업계획 수립

진행사진



04

마을에서 묻고, 주민이 답하다

근거 기반 실천 원칙

*자세한 사항은 아래 QR코드를 스캔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강릉종합사회복지관은 체계적인 현장 연구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고유한 수요 및 욕구에 대응하여 사회복지실천의 전문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전문적 실천의 완성은 당사자의 이야기와 현장의 실천 경험을 잘 녹여내는 것이라는 생각을 담아 실천인사이트 사례집도 발간하고 있습니다. 2025년 한 해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실천했던 결과를 보고합니다.

조사연구 프로그램 이용자 만족도 및 욕구 조사

- ① 조사목적: 복지 욕구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자원 배분 및 지역 상황에 맞는 서비스 기획
- ② 조사내용: 클라이언트 만족도 조사(CSQ), 프로그램 자조모임 욕구, 진행시간, 난이도, 강사, 변화사항 등
- ③ 조사활용: 프로그램 포트폴리오 다변화, 역량 있는 강사와의 파트너십 강화, 프로그램 구성 요소 내 주민의 주도성 강화 등

마을탐색 문진 마을재난안전 지도(주문 1·2·5·7·8리)

- ① 활동목적: 마을의 재난, 안전 사각지대 시각화를 통해 주민의 경험, 위험 요소를 조직화
- ② 활동내용: 일상 속 불편과 위험을 느끼는 언덕, 계단, 안전바 필요 장소 등 표시
- ③ 결과활용: 마을환경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 활용

성과보고 성인문해교실 사례집 '꿈글터, 봄을 쓰다'

- ① 사업목적: 학습 기회를 통한 개인별 맞춤형 문해 역량 강화
- ② 사업내용: 한글교실, 영어교실, 나들이, 시화전, 굿즈 제작 등
- ③ 주요결과: 어르신 문해역량강화 92점 달성, 참여 만족도 3.9점(4점 만점) 달성, 자기효능감 9.7% 향상

중학생 동아리 서포터즈 활동 사례집

- ① 사업목적: 아이들의 또래 관계 및 자기효능감 증진
- ② 사업내용: 청소년이 직접 만드는 청소년가요제(예선, 본선 캠페인 기획), 마을 역사 탐방 및 소개 영상 촬영, 업로드
- ③ 주요결과: 또래관계수준(척도) 10% 향상, 자기효능감 12% 향상(통계적 유의 검증)

활동사례 사회복지 현장실습 사례집(동계, 하계)

- ① 활동목적: 사회복지실천의 원리와 방법을 이해하는 예비 사회복지사 양성
- ② 활동내용: 기본교육 이수, 실천사례 경험, 단기프로젝트 기획 및 실행, 평가 등
- ③ 주요결과: 사회복지 현장실습 동계, 하계 이수 완료(사례집 발간)

05

2025 한 눈에 보기

아이들의 꿈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① 결연후원

33,400,000원

② 도담서포터즈

10% 향상

또래관계

③ 자기효능감

11.8% 향상

마을에서 온기를 나눴습니다.

① 자원봉사시간

29,497시간 40분

(3,603회)

② 연간 자원봉사자

1,372명

③ 나는 후원물품

127,242,790원

④ 아동소원이뤄주기 [산타프로젝트]

20,413,000원

당사자와 지역사회의 위기를 회복했습니다.

① 자원발굴 및 연계

25건

② 위기가정 지원사업

4,725,400원

③ 한끼드림 (식사배달지원)

연 4,411명 지원

④ 장수식당 (노인무료급식)

연 33,106명 지원

⑤ 난방지원

연 340명

⑥ 강릉 가뭄사태극복 강원특별자치도지사 표창 수상

⑦ 주문진 마을재난 안전 지도 제작

일상 속 행복을 찾았습니다.

① 난타 프로그램 율림

우울 20% 감소

② 우리동네 뜨개방

우울 10% 감소

③ 꿈글터 목표대비

35% 향상

④ 문화예술 프로그램

심리적 안녕감 8.6% 향상

서로의 울타리가 되어주었습니다.

① 유대난 라이프 (고립 위험 가구)

사회적 고립감

18.5% 감소

② 주민이 기획하는 프로젝트

(초록옷장 바자회 등)

3회 진행

③ 마을활동가 지역 공동체 의식

17% 향상

④ 우리동네 그린러너 환경의식

5.3% 향상

06 연간 실천 실적 총괄표

강릉종합사회복지관은 3대 기능(사례관리, 서비스제공, 지역조직화) 사업을 부서별로 전문화하여 실천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총 84개의 사업을 운영하며 지역주민과 만나고, 욕구 및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 공동체를 도왔습니다.

단위: 건/%

대분류	중분류	건/%		실인원/%		연인원/%	
		건	%	인원	%	인원	%
사례관리	사례관리 프로세스	484	116	479	122	484	116
	서비스지원 및 연계	150	96	108	86	377	97
서비스제공	교육문화	227	105	266	125	1,500	72
	가족기능강화	24	104	17	121	132	85
	지역사회보호	74	100	1,921	259	6,229	105
지역조직화	주민조직화	546	98	2,504	72	4,810	74
	복지네트워크	11	65	479	360	503	278
	자원개발 및 관리	133,039	166	132,986	165	132,986	164
	사회보장특구사업	1,826	97	6,168	140	11,323	90
운영지원	장수식당	291	98	201	134	33,106	74
	노인일자리	2,080	100	831	110	53,227	140
기획전략	직원개발 및 복지사업	290	101	113	81	742	51
	기타사업	22	51	25	54	42	63
계		139,074	160	146,098	160	245,461	121

지역사회를 위한 실천 활동에 함께해보세요!

2026년은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자원봉사, 후원, 각종 공동체 프로그램에 함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자원봉사 참여



후원참여



네이버 블로그

07 2025 뉴스룸

1월 | 명절정서지원서비스설립행사

기간 1월 23일~24일

대상 지역주민

내용 정서지원 프로그램 및 명절 꾸러미 나눔



2월 | 교육문화 정기프로그램 개강

기간 2월~연중

대상 지역주민

내용 주문마루 차차차 등 문화 프로그램



3월 | 주문마루센터 사업설명회

기간 3월 13일

대상 지역주민, 유관기관

내용 사업설명회, 마을돌봄터 현판식



3월 | 우리동네 그린러너 지역사회 환경캠페인

기간 3월 27일


대상 지역주민


내용 그린러너와 함께하는 올바른 분리배출 캠페인, 바자회




2025 뉴스톱

4월	주민기획프로젝트: 초록옷장	
기간	4월 21일	
대상	지역주민	
내용	자원 재순환을 위한 바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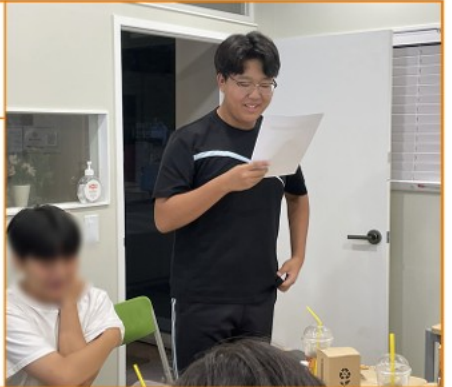
5월	가정의달 행사: 오!해피데이	
기간	4월 29일~5월 31일	
대상	지역주민, 저소득 아동 가정	
내용	가정의 달 꾸러미 나눔, 저소득 가정 외식 지원	


6월	단오맞이 청소년 가요제	
기간	6월 1일	
대상	본선 진출팀(10팀), 지역주민	
내용	단오맞이 청소년 가요제 경선	

7월	여름방학 프로그램: Summer Log	
기간	7월 28일~8월 8일	
대상	돌봄 공백 초등학생 고학년 아동	
내용	직업체험, 공방체험, 체육활동, 나들이 등	

8월	환경실천프로젝트: 깨끗해(海) 캠페인	
기간	8월 22일	
대상	주문진읍 지역주민	
내용	해변 플로깅 활동 진행	


9월	명절정서지원서비스 추석행사	
기간	9월 29일~10월 2일	
대상	지역주민	
내용	명절 꾸러미 나눔, 노래잔치, 영화관람 등	


9월	중학생 도담 서포터즈: 오감필름	
기간	9월 24일	
대상	중학교 3학년	
내용	우리동네 역사탐방 및 영상 제작	


9월	월간 주문경: 마루필름	
기간	9월 6일	
대상	주문진읍 지역주민	
내용	마을영화관 및 프로그램 전시회 진행	


2025 뉴스룸


<p>9월 가뭄사태 공동대응</p>	
<p>기간 9월 대상 지역주민 내용 자원봉사활동, 식당 비상운영, 가뭄 대응 꾸러미 지원 등</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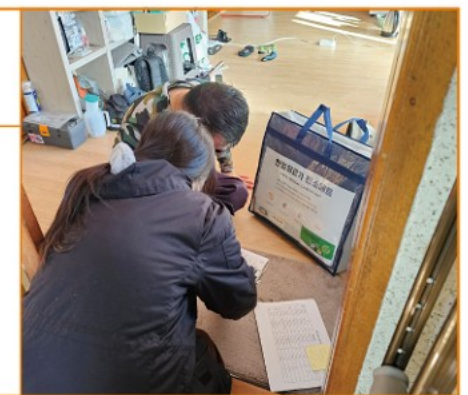
<p>10월 아동·청소년 멘토링사업: SO, WANT</p>	
<p>기간 10월 25일~12월 27일 대상 초등학생, 지역대학생 내용 다양한 진로탐색 멘토링 활동</p>	

<p>11월 유대한 라이프 가을 나들이</p>	
<p>기간 11월 13일 대상 고립 위험이 높은 중장년 지역주민 내용 가을 나들이(원주)</p>	

<p>11월 주민기획프로젝트: 초록옷장</p>	
<p>기간 11월 21일 대상 주문진읍 지역주민 내용 바자회, 체험부스, 프로그램 전시회</p>	

<p>11월 온기마루</p>	
<p>기간 11월 26일 대상 주문진읍 지역주민 내용 지역주민과 함께 수육잔치, 동절꾸러미 나눔</p>	

<p>12월 마루스케치</p>	
<p>기간 12월 19일 대상 지역주민 내용 프로그램 전시, 체험, 영화관람, 먹거리</p>	

<p>12월 난방지원</p>	
<p>기간 12월 3일~12월 19일 대상 겨울철 난방지원이 필요한 지역주민 120가구 내용 민관협력 겨울철 난방용품 나눔</p>	

<p>12월 산타 프로젝트</p>	
<p>기간 12월 17일~25일 대상 산타 후원자 128명, 아동·청소년 20명 내용 소원편지 접수 및 맞춤형 지원</p>	

08 2025 나눔 전달식



강릉시상하수도사업소 설 맞이 후원금품 전달 (2025. 1. 21.)



강원지방통계지청 설 맞이 후원금품 전달 (2025. 1. 21.)



근로복지공단 강릉지사 설 맞이 후원금품 전달 (2025. 1. 22.)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릉지사 설 맞이 후원금품 전달 (2025. 1. 22.)



한국가스안전공사 강원영동지사 설 맞이 후원금품 전달 (2025. 1. 23.)



선미한과 후원금품 전달 (2025. 2. 27.)



강릉관광개발공사 어버이날 후원금품 전달 (2025. 5. 8.)



한국전력전우회 어버이날 후원금품 전달 (2025. 5. 8.)



대한적십자사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오죽봉사회 후원금품 전달 (2025. 5. 20.)



정나눔이 여름김치 전달 (2025. 6. 17.)



강릉시소상공인연합회 외식지원 후원증서 전달 (2025. 6. 27.)



참빛영동도시가스 에너지효율 개선 후원금품 전달 (2025. 7. 24.)



신용보증기금 후원금품 전달 (2025. 7. 31.)



KT서비스 남부 노사랑 기금 전달 (2025. 8. 26.)



강릉솔향로타리클럽 생수 전달 (2025. 9.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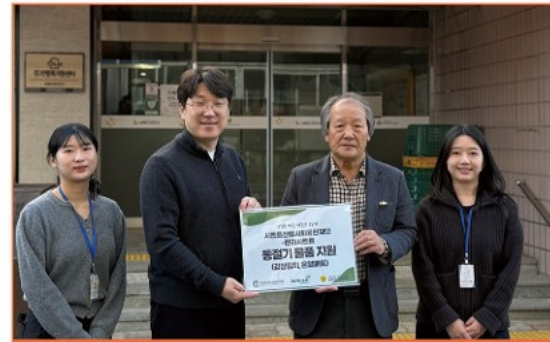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생수 전달 (2025. 9. 10.)



한국가스기술공사 강원지사 후원금품 전달 (2025. 9. 16.)



동화가스 효자두유 후원금품 전달 (2025. 9. 16.)



시멘트산업사회공헌재단(한라시멘트) 동절기 후원금품 전달 (2025. 11. 28.)



장검다리 후원회 산타 프로젝트 후원금품 전달 (2025. 12.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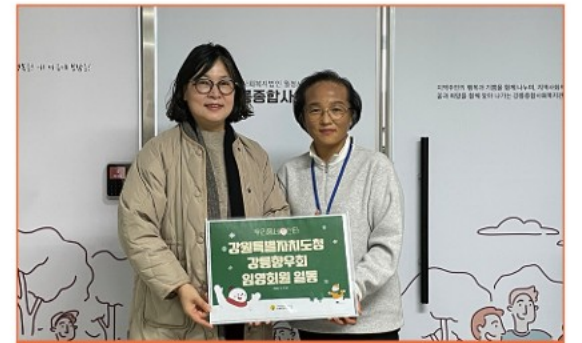
임영라이온스 후원금품 전달 (2025. 9. 19.)



이음더봉사단 후원금품 전달 (2025. 9. 19.)



BB봉사단 산타 프로젝트 후원금품 전달 (2025. 12. 5.)



강원특별자치도청 강릉향우회 임영회원 산타 프로젝트 후원금품 전달 (2025. 12. 5.)



국민연금공단 강릉지사 추석맞이 후원금품 전달 (2025. 9. 24.)



KT 추석 맞이 후원금품 전달 (2025. 9. 24.)



강릉로타리클럽 후원금품 전달 (2025. 12. 16.)



농협은행 강릉시지부 후원금품 전달 (2025. 12. 18.)



한국부동산원 강원지사 추석맞이 후원금품 전달 (2025. 10. 1.)



근로복지공단 강원지사 추석맞이 후원금품 전달 (2025. 10. 2.)



주문마루 마을활동가 산타 프로젝트 후원금품 전달 (2025. 12. 17.)

09 재정정보

우리의 전문성과 깨끗함과 탄탄한 신뢰에서 비롯됩니다. 회계법인 감사, 강릉시 지도점검, 운영 법인 감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회계 전반에 대하여 관리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예·결산 및 후원금(품) 사용 결과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관 운영에 대하여 보다 투명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복지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 수입

(단위 : 원)

구분	내역		
	2025년 예산(A)	2025년 결산(B)	증 감(B)-(A)
계	3,515,093,352	3,452,871,644	-62,221,708
사업수입	0	0	0
보조금 수입	3,070,882,800	3,019,412,180	-51,470,620
후원금 수입	233,353,289	222,243,400	-11,109,889
전입금	15,000,000	15,000,000	0
이월금	184,507,263	184,507,263	0
잡수입	11,350,000	11,708,801	358,801

나. 지출

(단위 : 원)

구분	내역		
	2025년 예산(A)	2025년 결산(B)	증 감(B)-(A)
계	3,515,093,352	3,452,871,644	-62,221,708
사무비	729,146,228	695,701,964	-33,444,264
재산 조성비	88,500,000	80,631,390	-7,868,610
사업비	2,574,097,785	2,406,902,180	-167,195,605
잡지출	21,327,418	19,761,719	-1,565,699
예비비 및 기타	102,021,921	102,021,341	-580
이월금	0	147,853,050	147,853,050

10

실천스토리

회복

위기가정 사례관리, 초록기억 시나미카페, 빈집노후주택개선사업, 서비스 지원 및 연계, 맞춤형 지원, 귀환납북자 사회적응 지원사업

성장

중학생 동아리 서포터즈, 드림드림, 단오맛이 청소년가요제, 여름방학 프로그램, SO-WANT

나눔

산타 프로젝트, 후원 캠페인, 한끼드림, 늘해랑돌봄빨래방, 장수식당, 동절기 지역돌봄사업, 가정의달 오!해피데이, 명절정서지원서비스

행복

프로그램 전시회, 교육문화 프로그램, 건강관리 프로그램, 문화가 있는 우리동네, 행사기획단, 늘푸름환경지킴이, 우리동네 1촌돌봄단

연대

주문마루 마을활동가, 식생활 돌봄지원, 유대한라이프, 주민동아리 활동지원, 강남동 마을관리소, 주민모니터링단, 우리동네 주민 만나기

미래

우리동네 그린러너, 마을재난대응복지사업, 가뭄대응사업

실천스토리

회복

불안하지만 이제는 괜찮아		위기가정 사례관리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사자의 특성과 상황에 맞는 문제상황을 확인한 후 맞춤형 서비스 제공 · 노인 복지에 치중되지 않은 다양한 연령대 가구 발굴 및 지원 		
기간	1~12월	대상	사례관리 당사자
내용	사례관리 당사자별 맞춤형 자원 연계		
사업설명			
<p>당사자의 현재 위기에 대한 복합적인 욕구를 파악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당사자와 합의를 통해 목표를 설정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지사각지대 당사자 발굴을 목표로 민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영역들을 넓히고 연속성 있는 외부 자원 발굴, 확보를 통해 위기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p>			
당사자·지역 변화			
<p>사례관리는 다양한 연령대와 가족형태로 구성된 지역주민이 누구든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발굴 또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접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사례는 우연히 복지관의 다른 사업과 연계된 당사자가 “도움이 필요하다” 라는 문항에 답변을 하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넉넉하진 않지만 평범하고 행복하게 지내던 우리집이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건강 위기로 평범한 일상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p> <p>응급 수술 후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를 위해 매일같이 간병을 하던 어머니를 대신해서 어린 동생의 밥을 챙겨주고 등교를 책임져주는 든든한 첫째</p> <p>갑작스러운 위기에도 가족이 돌돌 뭉쳐 이겨내려고 노력했으나 현실은 녹록치 않았고 늘어나는 병원비와 간병으로 인해 근로를 할 수 없어서 마련하지 못하는 생활비</p> <p>아버지 간병을 위해 장거리를 이동하던 어머니의 건강 악화로 순식간에 위기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p> <p>“혼자 감당하기 점점 지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p> <p>우리 복지관은 갑작스러운 질병과 위기상황으로 일상 유지가 어려워진 당사자 가구에 대해 공적 제도 및 긴급지원 정보를 제공하고, 조사 기간 동안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례관리 긴급지원 연계를 지원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당사자는 생계 공백 상황에서 최소한의 생활 기반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학습 지속을 위해 개별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가족의 상황으로 인해 스스로 욕심을 줄이며 생활하던 첫째에게 학습비를 지원함으로써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목표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를 통해 자녀는 학습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회복하였고, 가족 내 돌봄 부담 또한 일부 완화되었습니다.</p> <p>정서적 지지를 중심으로 한 지속적인 관계 형성을 통해 당사자는 위기 상황 속에서도 가족 간 지지체계를 유지하며 일상을 이어갈 수 있는 힘을 회복해 나갔습니다. 개입 과정 중 아버지의 사망이라는 추가적인 위기를 경험하며 다시금 어려움을 겪는 순간도 있었으나, 당사자는 “아이들”이라는 삶의 이유를 바탕으로 일상을 유지하려는 의지를 이어가고 있으며, 복지관과의 관계 또한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지원 체계 안에서 회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p>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웠는데 이제는 도움을 받을 곳을 알게 되었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p>본 사례는 ‘혼자 버텨야 한다’는 인식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와 함께 해결해 나가는 경험을 통해, 위기 상황 속에서도 회복 가능성을 만들어가는 변화의 과정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p>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맞춤형 급여 복지 정보 및 긴급지원 정보 제공 ·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 연계 · 학업증진을 위한 돌봄비 및 학습비 지원 · 동절기 의류 및 난방용품 지원 		

기억을 잇는 따뜻한 쉼터		초록기억 시나미카페(2호점)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지기능 저하 예방을 위한 다양한 인지활동 · 지역주민 참여를 통한 차매 친화적 마을 환경 조성 		
기간	8~12월	대상	만60세 이상 지역주민
내용	지역주민 커뮤니티 공간 조성 및 프로그램 운영		
사업설명			
<p>‘내가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강릉형 통합돌봄지원사업 강릉안애(安愛) 슬로건입니다. 통합돌봄지원사업은 질병, 노화, 사고 등으로 스스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의 돌봄 필요도를 고려하여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p> <p>그 중 우리 복지관은 노화로 인해 인지장애를 겪고 있는 어르신들이 집안에서만 생활하지 않고 집 인근 공간에서 편안한 휴식과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여 운영하였습니다.</p> <p>평소에 관심도 없던 나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보고 맑은 하늘과 우리집 앞마당도 예쁘게 찍어보고 각자의 사진에 대한 생각을 나누며 무료하던 시간을 알차게 보냈습니다. 또한 꽃과 미술재료를 활용하여 우리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소품들을 만들며 잊고 있던 나의 취향에 대해 알아가고 나만의 색깔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경험했습니다.</p>			
당사자·지역 변화			
“집에만 있으면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는데 시나미카페에 오면 하루를 알차게 보낸 느낌이 들어요”			
<p>외출과 활동이 줄어들며 집안에 머무르던 어르신이 커뮤니티 공간을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되면서 일상 속 외부활동이 자연스럽게 증가하였습니다.</p> <p>또한 평소에 경험하지 못한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자신의 취향과 감각을 재인식하는 경험을 하고 이러한 경험 속에서 옆에 앉은 사람과 교류하고 소통하며 정서적 안정감과 관계 형성 경험이 점점 확대되는 변화를 알게 되었습니다. 초록기억 시나미카페(2호점)을 접하는 어르신은 자신이 ‘도움이 필요한 대상’이 아닌 ‘함께 살아가는 이웃’ 중 한사람으로 인식의 변화를 하게 됩니다.</p> <p>개인의 일상 회복을 넘어 관계와 마을 속에서 기억을 잃어버리지 않는 마을로 천천히 나아가는 중입니다.</p>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3건 / 71명(실인원) / 71명(연인원) · 프로그램 만족도 80% 이상, 초록기억 전시회 1회 실시 		



집 밖에 머물던 발길이, 그 안에 닿을 때까지

빈집노후주택개선사업

목표

- 생활만족도 척도 사전 대비 향상
- 주거환경 이미지 척도 사전 대비 향상
-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기간

2025. 7. 1~ 2025. 12. 19.

대상

주문진읍 지역주민

내용

노후주택 지붕방수, 창호, 도배, 장판 개보수 및 특수청소

사업설명

주문진에 위치한 '고댕이마을(등대마을)'은 한국전쟁 직후 많은 피난민들이 정착하여 70년이 넘는 세월을 함께해 온 곳으로, 오랜 시간의 흐름 속에서 노후화된 주택이 매우 많습니다. 노후된 주택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시거나, 또는 누군가에게 쉽게 말하지 못한 삶의 어려움이 생활환경에 그대로 쌓여 있는 가구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주문진 지역 내 고립 취약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고, 가정 방문을 통해 실제 생활 상황과 욕구를 세심하게 확인하였습니다.

한 가구의 경우 방 한쪽 창문과 지붕에 문제가 있어 방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로 인해 바닥과 벽에 곰팡이가 발생한 상태였습니다. 또 다른 가구에서는 생활 폐기물이 장기간 쌓여 있어 위생과 안전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강릉시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하고, 1촌돌봄단 및 마을활동가로 활동하는 지역주민들과 함께 대상 가구를 방문하여 고치고 싶은 부분과 필요한 사항을 직접 확인하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비가 새는 지붕을 보수하고, 오래된 창문을 교체하였으며, 곰팡이와 오염이 심했던 실내 공간을 정비하여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으로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혼자 생활하시며 점차 쌓이게 된 생활 폐기물을 함께 정리하며, 물리적인 공간뿐만 아니라 마음의 부담도 덜어드리고자 하였습니다. 이처럼 본 사업은 단순한 주거환경 개선을 넘어, 지역주민의 삶의 어려움을 함께 이해하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되었습니다.

당사자·지역 변화

처음 방문했을 때 한 당사자는 "이대로 살다가 얼마 못 산다"는 말씀을 할 정도로 생활환경과 삶에 대한 의욕이 많이 낮아진 상태였습니다. 집 안의 환경이 오랜 기간 방치되면서 신체적·정서적 어려움이 함께 누적되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주거환경 개선이 진행되면서 대상자는 점차 변화를 받아들이기 시작하였고, 정리된 공간에서 생활하며 이전보다 안정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직접 기관을 찾아와 감사 인사를 전하고, 마을 행사에도 참여하며 지역주민과 다시 교류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집 안에 쌓여 있던 쓰레기와 물건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아까워하시고 왜 이렇게 많이 버렸냐며 서운해하셨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스스로도 마음의 짐을 내려놓게 되었고, 필요 없는 물건을 조금씩 정리하는 습관을 갖고 새로운 생활을 시도하려는 의지를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주거환경 개선을 넘어, 대상자가 지역사회와 다시 연결되고 삶의 변화를 스스로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실적

- 주문마루 주거환경개선 2가구 진행
- 생활만족도 척도 33% 향상
- 주거환경 이미지 척도 20% 향상

주택개선 전



주택개선 중



주택개선 후



서비스 지원 및 연계		
목표	당사자의 복합적인 문제 및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연계	
기간	1월~12월(연중수시)	대상 도움이 필요한 지역주민
내용	결연후원사업, 맞춤형 서비스 지원(자원발굴 및 연계), 위기가정지원, 주거환경개선, 산타 프로젝트 등 운영	
실적		
<div style="background-color: #f9e79f;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 실인원 108명 / 74,713,674원 지원 </div>		
주요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گیا대책 2025년 위기 이주배경가정 긴급지원사업 '기대드림' 3개월 간 주거비 지원 · 대구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 연계 · 강릉시가족센터 온가족보듬지원사업 연계 · 아산사회복지재단 SOS복지지원사업 3개월간 생활비 지원 · 굿네이버스 신한금융희망재단 위기지원사업 주거비 및 생활비 지원 · 2025년 강원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하는 희망여름 착착착 흑서기 물품 나눔 여름이불 지원 · 2025년 월드비전 아이시원(냉방비) 지원사업 신청 연계 · 2025년 강원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하는 추석명절 선물꾸러미 나눔 사업 신청 및 연계 · KBS강태원복지재단 2025년 어르신 물품지원사업 '겨울쿨쿨' 온열매트 지원 · 초록우산어린이재단 2025 위기영아 긴급지원 일상생활돌봄비 지원 · 한전KPS(주) 강릉사업소 가뭄피해지역 거주아동 일상회복지원사업 일상회복비 지원 · 세이브더칠드런 2025년 저소득가정 흑한기 난방용품 지원사업 겨울이불 지원 ·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산타원정대 소원성취 지원사업 선물구입비 지원 · 2025년 월드비전 특화사업 난방비 지원사업 신청 연계 · 위기가정지원-식료품(월1회, 3개월) 지원 1건 · 주거환경개선-해충방제 지원 1건 · 산타 프로젝트 아동 20명 선물 지원 		

맞춤형 지원		
목표	일상생활 지원, 단순정보 제공 등 맞춤형 지원	
기간	1~12월	대상 도움이 필요한 지역주민
내용	주거환경개보수, 해충방역, 일상생활지원, 긴급지원, 단순 복지정보 제공, 단순 모니터링	
실적		
<div style="background-color: #f9e79f;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 53명 지원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환경개선 해충방역 및 청소 1회 실시 · 사례관리 가정 일상생활 지원 1회(식료품 구입) · 개입 거부, 고립 위험, 만성 우울증 등 관찰이 필요한 당사자 모니터링 진행 · 지역주민 의뢰로 우리 복지관 개입 필요여부 판단을 위한 방문 상담 실시 		

귀환납복자 사회적응 지원사업		
목표	귀환납복자가 지역사회에 적응하여 그 구성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	
기간	3월~11월	대상 강릉시 거주 중인 귀환납복자
내용	사례관리를 기반으로 한 가구별 상황과 욕구에 따라 영역별 지원 및 지원 연계	
실적	연인원 20명	

실천스토리

성장
영양

교과서 밖 마을에서 발견한 우리들의 이야기

중학생 동아리 서포터즈
(도담 서포터즈)

목표	청소년 또래관계 및 자기효능감 증진	기간	2025. 4. 27~2025. 12. 14.
대상	강릉시 중학생 8명	내용	단오맞이 청소년 가요제 기획 및 진행, 강릉시 역사 영상 촬영 및 편집

사업설명

요즘 아이들을 보면 참 안쓰러운 마음이 듭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아이들의 행복지수는 세계 최하위권이라고 합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웃음은 줄어들고, 강원 지역 아이들의 행복지수도 전국 평균보다 낮다고 하니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루에 2시간도 채 못 쉬는 아이들이 태반이고, 그나마 남은 시간에도 집에서 스마트폰을 보거나 PC방에 가는 게 전부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마음껏 쉬고 놀 권리”가 있는데 말이지요. 특히나 우리 강릉은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참 많지만, 정작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즐길 만한 활동은 부족한 편입니다. 단순히 노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과 함께 건강한 관계를 맺으며 자라나는 시간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학교나 학원처럼 정해진 곳 말고, 우리 청소년들이 직접 주인공이 되어 무언가를 기획하고 만들어보는 경험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관은 우리 동네 아이들이 스스로 활동을 찾아가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보았습니다.

먼저, 음악을 사랑하고 친구들과 특별한 추억을 만들고 싶은 중학생 친구들과 함께 ‘단오맞이 청소년 가요제’를 준비했습니다. 본선 무대에 오르기 전, 서먹서먹했던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아이들이 직접 ‘고요 속의 외침’ 같은 재미있는 게임들을 기획해 진행했는데요. 처음에는 다들 떨리고 어색해했지만, 금세 웃음꽃이 피어나며 즐겁게 어우러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가요제 당일에도 아이들은 각자의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주민분들을 만나 청소년들을 향한 따뜻한 응원을 메시지로 모으고, 무대를 마친 친구들의 생생한 소감을 담아내기도 했지요. 무더위보다 더 뜨거웠던 ‘도담 서포터즈’ 친구들의 열정이 빛난 순간이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조금 더 특별한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여성사회복지재단의 지원을 받아 우리 동네 강릉의 역사를 직접 탐방하고 영상으로 기록하는 ‘우리 동네 한 바퀴’ 사업을 진행한 것인데요. 처음엔 역사가 어렵게만 느껴졌지만, 직접 오죽헌을 발로 뛰며 설명을 듣다 보니 아이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학업으로 바쁜 와중에도 틈틈이 시간을 내어 영상을 촬영하고, 머리를 맞대어 편집까지 마쳤습니다. 완성된 영상을 다 함께 돌려보던 날, 그동안의 고생이 보람으로 바뀌며 코끝이 찡해지는 감동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모든 활동을 마무리하며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 수요증과 작은 선물을 전달하며 한 명 한 명의 앞날을 진심으로 응원했습니다. 우리 지역 청소년들이 스스로 무언가를 꾸꾸고 실행해 본 이 경험들이, 훗날 멋진 어른으로 성장하는 든든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앞으로도 함께 응원해 주세요!

당사자·지역 변화

단오맞이 청소년 가요제 1차 예선과 본선 활동을 준비하면서 도담 서포터즈 청소년들은 “처음에는 어떻게 행사를 진행하고 이루어가는지 걱정도 많고 고민이 많았었는데, 친구들과 함께 하니 좋은 경험으로 남았어요”라고 하며 초반 활동과 달리 자신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행하는 것도 어색해하던 친구들이 스스로 의견을 내고 지역주민을 만나는 과정에서 자신감을 얻고 스스로 활동하는 것에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곁에서 도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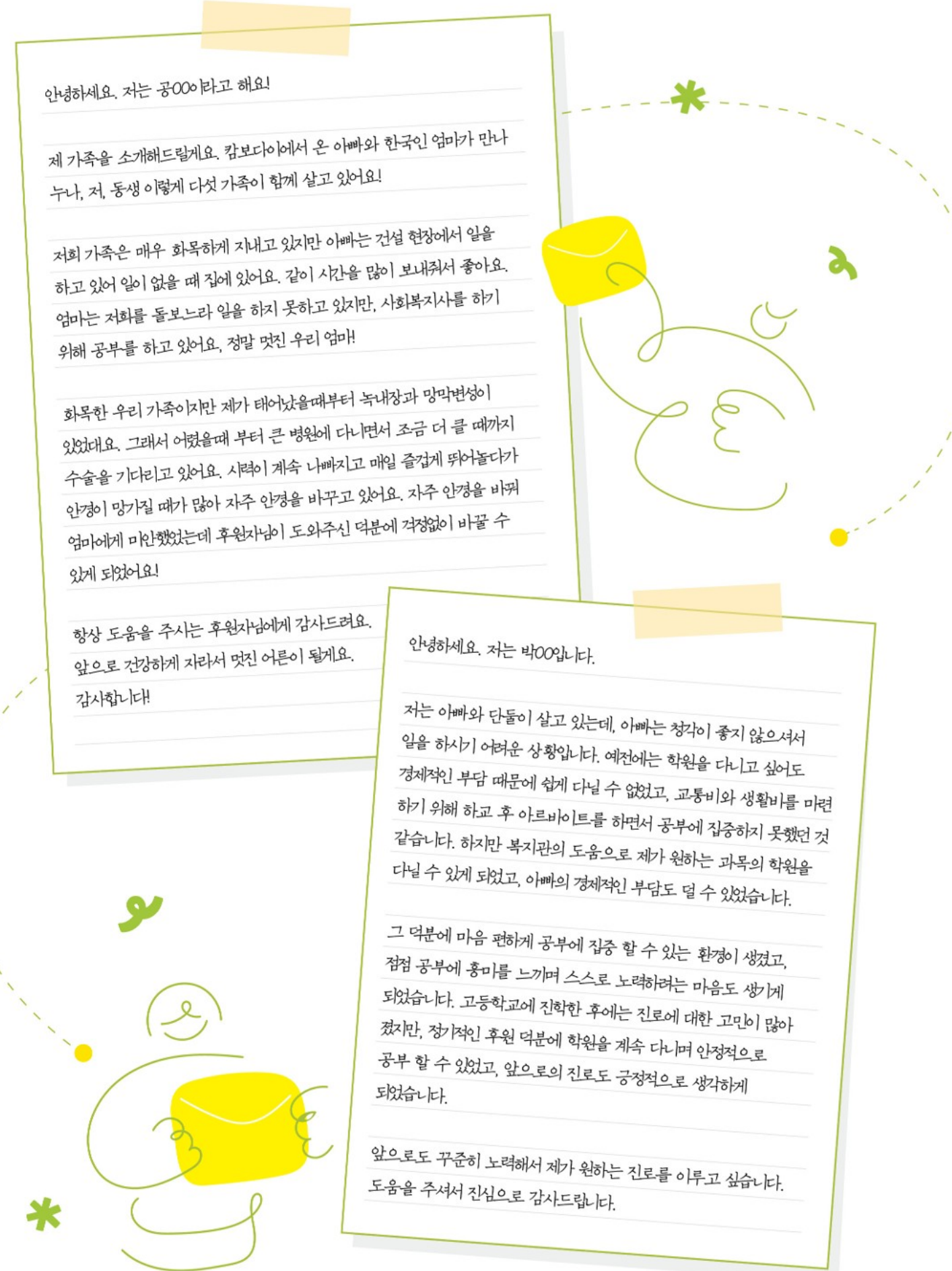
강릉시의 다양한 역사적 공간들을 친구들과 함께 알아가며 몰랐던 역사 사실도 알게 되고 교과서로만 보는 것보다 직접 방문해서 알아가고 영상도 촬영하니 나들이를 온 것처럼 즐거웠다고 합니다. 나와 내 친구가 영상에 나오는 경험을 함께 이루어가니 “영상에 제가 나오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친구들이랑 같이 편집도 하니 재밌었어요. 또 오죽헌을 잘 몰랐는데, 더 잘 알게 되어서 뿌듯해요”라며 친구들과의 관계가 더 돈독해진 것 같습니다.

실적

- 또래 관계 척도 사전 대비 사후 10% 향상
- 자기효능감 척도 사전 대비 사후 11.8% 향상(P<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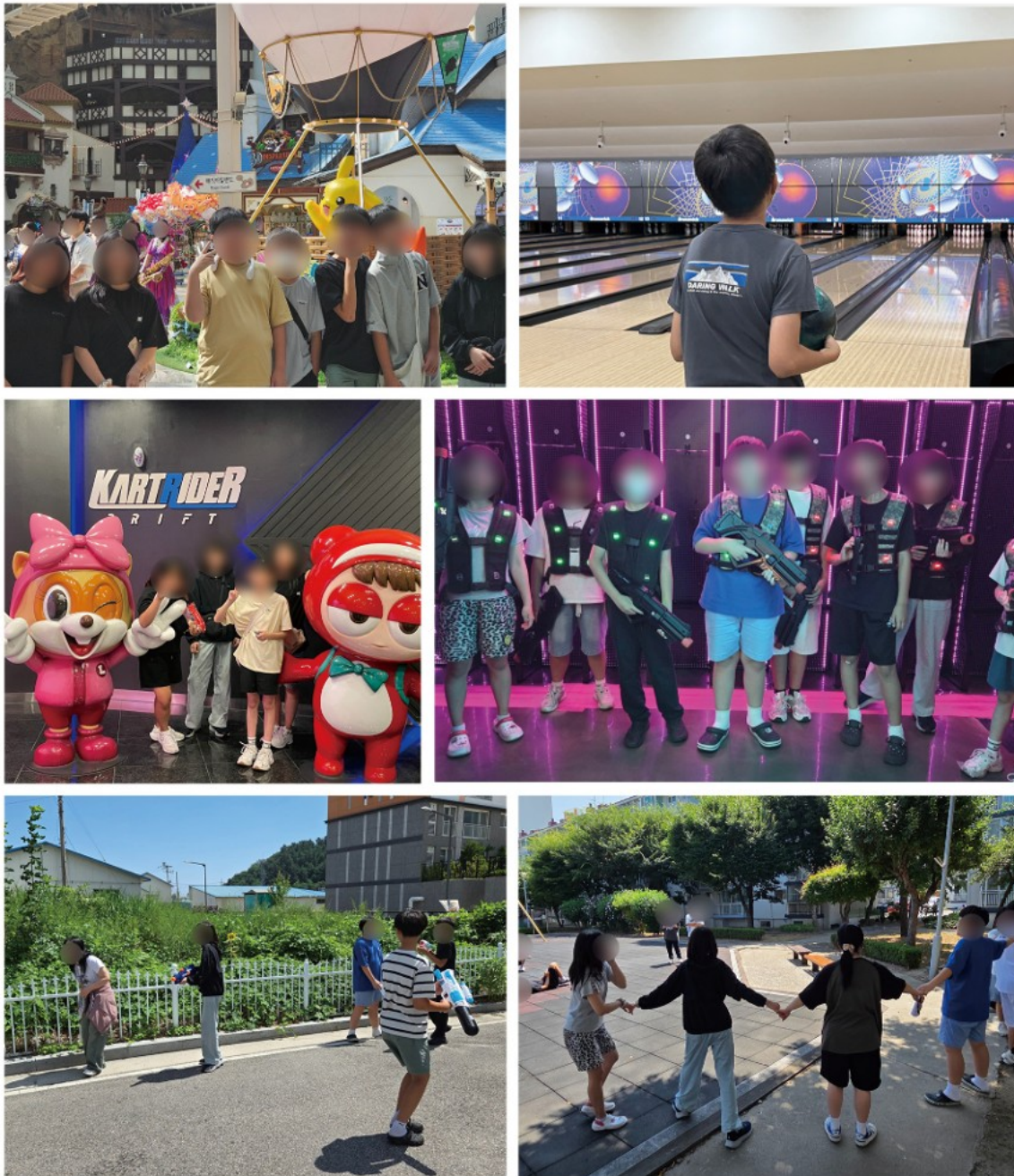
누군가의 응원이 만든 변화		드림드림(정기결연후원사업)	
목표	아동·청소년의 기본 권리 보장	기간	2025. 1. ~ 2025. 12.
대상	정기 후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내용	아동의 성장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 및 물품 전달
사업설명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은 가정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학습, 문화, 생활 전반에서 다양한 제한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히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기에 일회성 지원에만 그칠 경우 아동의 성장 과정에서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드림드림은 단발성이 아닌 정기적인 결연후원을 통해 아동이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성장 과정에 경험해야 할 것들을 누리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후원금은 아동의 상황에 따라 학습비, 생활비, 문화활동비 등으로 활용되며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아동이 자신의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당사자·지역 변화			
“혼자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가족의 문제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성장해야 할 아이들이 일상의 어려움을 고민하는 순간 정기결연후원을 통해 안정적인 지원을 받으며 일상생활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르바이트로 시간을 보내던 아동은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고 미래에 대한 기대와 계획을 세우는 변화를 보였습니다.			
정기결연후원 아동은 어느 누군가의 꾸준한 지원으로부터 '누군가에게 지지받고 있다', '응원받고 있다'라는 든든한 안정감을 느끼고 이는 자존감 향상과 함께 '나도 성장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자기 인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적	40건 / 25명(실인원) / 252명(연인원) / 31,200,000원 지원		



무대 위에서 빛난 우리들의 이야기		단오맞이 청소년 가요제	
목표	청소년의 문화여가 증진, 청소년 간 문화교류 및 소통 증진	기간	2025. 4. 10. ~ 6. 1.
대상	강원특별자치도 거주 청소년(2007년~2012년생) 및 본선 관람 지역주민		
내용	단오맞이 청소년 가요제 예선 및 본선 진행		
사업설명			
<p>최근 청소년들은 학업 중심의 생활로 인해 여가시간이 부족하며, 남은 시간마저 스마트 기기 사용에 할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학업 스트레스는 적절히 해소되지 못하고, 또래와 소통하거나 자신을 표현할 기회는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다양한 경험이 중요한 시기임에도 이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현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소년들이 마음껏 끼를 펼치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합니다. 단오맞이 청소년 가요제는 노래라는 친숙한 방법을 통해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무대 경험을 통해 자신감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가요제를 통해 청소년들이 서로의 무대를 응원하고 교류하며 긍정적인 또래 관계를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지역 고유의 축제인 단오와 어우러지는 활기찬 장을 마련하여,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건강한 여가 문화를 주도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청소년 가요제는 온라인1차 예선을 시작으로 오프라인 2차 예선, 그리고 단오제 본선 무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 접수를 받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솔로, 밴드 등 다양한 끼를 가진 청소년들이 참여했습니다. 총 31명(팀)이 지원해 주었으며, 이 중 16명(팀)이 1차 예선을 통과해 오프라인 2차 예선에 진출했습니다.</p> <p>5월17일 토요일, 1차 예선을 통과한 참가자들은 복지관에 모여 오프라인 2차 예선을 치렀습니다. 예선 당일이라 그런지 다들 긴장 가득한 얼굴로 시작을 기다렸습니다. 처음 만난 어색함과 경연이라는 부담감 속에서 2차 예선의 막이 올랐습니다. 이때, 참가자들의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 중학생 동아리 서포터즈(도담 서포터즈)와 함께 팀빌딩 및 미니게임을 진행했습니다. 도담 서포터즈 친구들이 직접 기획하고 진행한 활동을 통해 경직되었던 분위기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참가자들은 함께 웃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음악이라는 공통 관심사를 매개로 가까워졌고, 서로를 경쟁자가 아닌 친구로 받아들이며 관계를 넓혀가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p> <p>6월1일 일요일, 단오제 수리마당에서 대망의 본선 무대가 펼쳐졌습니다. 본선에는 최종 10명(팀)이 올라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마음껏 선보였습니다. 무대 위 청소년들은 저마다의 색으로 노래하며 열정과 꿈을 빛냈고, 객석을 가득 채운 1,200여 명의 지역주민은 뜨거운 박수와 함성으로 응대했습니다. 청소년 가요제는 단순한 경연을 넘어, 청소년과 지역주민이 함께 호호하고 즐기는 하나의 축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무대 위의 도전과 성장, 그리고 그 순간을 함께한 응원이 어우러지며, 모두의 기억 속에 오래 남을 특별한 시간이 되었습니다.</p>			
당사자·지역 변화			
<p>오프라인 2차 예선 쉬는 시간, 같은 조에 앉은 친구들은 서로의 악기를 보고 감탄하거나, 어떤 가수나 노래를 좋아하는지 이야기를 나누며 '음악'이라는 공통의 관심사를 공유하는 친구로 발전했습니다.</p>			
<p>“평소 접점도 없을 곳의 친구들과 교류해서 좋았어요.” “음악하는 새로운 친구들과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가까워져서 좋았어요.”</p>			
<p>실제로 서로의 SNS 계정을 교환하며 경연 이후에도 관계를 이어가려는 모습을 보며, 청소년 가요제가 단순한 경연을 넘어 청소년들이 교류하고 관계를 형성하는 장으로 나아감을 느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청소년 가요제에 대해 “청소년들이 꿈을 이루는 것 같아서 너무 보기 좋아요. 응원하고 싶네요”, “청소년 가요제는 청소년들이 꿈을 위해 나아가는 첫 발걸음인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며, 따뜻한 응원을 보냈습니다. 이러한 반응 속에서, 청소년 가요제는 단순한 경연을 넘어 꿈을 향해 나아가는 의미 있는 무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p>			



여름방학 프로그램(여름방학 기록지: Summer Log)		
목표	돌봄 공백 완화, 또래 간 건강한 관계 형성	
기간	2025. 7. 28. ~ 8. 8.	대상 강릉시 거주하며 돌봄 공백이 발생한 초등학교 고학년(4~6학년) 아동 9명
내용	다양한 체험활동(만들기, 직업체험, 신체활동), 나들이	
실적	9건 / 9명(실인원) / 69명(연인원)	



아동·청소년 멘토링사업 "SO,WANT"		
목표	긍정적 관계 형성을 통한 정서적 지지 및 자아정체감 형성	
기간	5월~12월	대상 저소득 아동·청소년 4명(초등학생)
내용	다양한 경험의 기회 제공을 통한 진로 탐색 멘토링 활동	
실적	아동의 진로 탐색을 위한 다양한 경험 제공, 진로정체감 30% 향상	



실천스토리

나눔

우리동네 산타는 어떻게 연말을 보냈을까요?		산타 프로젝트	
목표	아동 자기결정권 강화 및 경제적 지원	기간	11~12월
대상	산타 128명, 복지 사각지대 아동	내용	소원 편지 접수, 산타 발대식, 맞춤형 선물 큐레이션 등
<p>사업설명 및 당사자·지역 변화</p> <p>12월이 되면 아이들은 기다립니다. 그러나 우리 마을에는 그 설렘을 당연하게 누리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기초수급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 가족을 돌보느라 자기 꿈을 잠시 뒤로 미뤄둔 아이, 제도의 틈 사이에서 조용히 버텨온 아이들입니다. 산타 프로젝트는 그 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가 닿을 수 있는지 묻는 데서 시작했습니다.</p> <p>올해로 두 번째를 맞이한 산타 프로젝트에는 128명의 이웃이 산타로 참여했습니다. 11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된 모금기간 동안 모인 후원금은 총 약 2천만 원에 이르렀으며, 이 마음은 기초수급·사각지대·가족돌봄 등 도움이 필요한 20명의 아이에게 1인당 약 40만 원 상당의 맞춤형 꾸러미로 전달되었습니다.</p> <p>산타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아이들의 소원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그린 그림과 비뚤비뚤한 글씨로 적어 내려간 소원 편지를 들여다보며, 산타들은 아이 한 명 한 명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천천히 헤아렸습니다. 치과 의사가 되고 싶다는 아이, 친구들과 마음껏 공을 차고 싶다는 아이, 더 힘들게 사는 다른 사람을 위해 살고 싶다는 아이. 그 소원지 앞에서 눈시울을 붉히는 산타들이 있었습니다.</p> <p>이어진 자리에서 산타들은 산타 라이선스를 받고, 아이들의 꿈을 지키겠다는 다짐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손으로 선물을 포장하고, 아이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떠올리며 답장 편지를 썼습니다.</p> <p>“치과 의사가 되고 싶은 너의 꿈이 산타 할아버지는 참 대견하구나. 사람들의 마음을 고쳐주고 웃음을 되찾아주는 일은 아주 따뜻한 마음이 있어야 한단다.”</p> <p>그 편지들은 선물 꾸러미 안에 조용히 접혀 들어갔습니다. 전달 방식도 신중하게 준비했습니다. 아이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그러나 산타의 마음은 온전히 닿을 수 있도록, 현관문 앞에 빨간 꾸러미를 살포시 놓고 돌아오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징검다리 후원회원들은 산타 복장을 갖춰 입고 직접 배달에 나서 주셨습니다. 선물을 받은 아이들의 소식은 이후 하나씩 전해졌습니다. 다른 옷이 있어도 산타 할아버지가 사준 롬패딩만 입고 다닌다는 아이, 선물받은 공으로 이 추운 날에도 매일 친구들과 논다는 아이, “올 겨울 따뜻하게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짧은 메시지를 보내온 아이. 그 소식들이 산타들에게 다시 닿았습니다.</p> <p>그러나 이 프로젝트가 남긴 것은 선물만이 아닙니다. 크리스마스를 계기로 더 깊은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과는 이후 상담이 이어지고 있고, 용기를 얻은 아이들은 새해를 다르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차갑게만 보던 아이가 이웃의 온기를 처음으로 경험하게 된 것. 그것이 이번 프로젝트가 거둔 가장 오래 남을 결실입니다. 집행 후 남은 잔여금 전액은 향후 학습지원, 멘토링 등 아동복지 사업에 100% 집행될 예정입니다. 크리스마스 하루가 아니라, 아이가 자라는 과정을 끝까지 지켜보기 위한 방법입니다.</p> <p>128명의 이웃이 산타가 되어 만들어낸 이 겨울이, 20명의 아이에게는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p>			
실적	아동 20명 맞춤형 지원 완료		



가족을 EAT-다		외식지원을 위한 후원캠페인	
목표	가족 유대감 강화 및 경제적 부담 완화		
기간	5~6월	대상	저소득 아동
내용	아동 외식지원		
사업설명 및 당사자·지역 변화			
<p>역대급 물가 상승이 이어지면서, 경제적 부담을 안고 살아가는 가정이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조손 가정, 한부모 가정, 가족을 돌봐야 하는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는 외식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치처럼 느껴지는 날들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원해도 참았고, 부모는 미안한 마음을 속으로 삼켰습니다.</p> <p>복지관은 이 마음들을 혼자 해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웃에게 물었습니다. 강릉시소상공인연합회 사장님들과 지역의 후원자 분들에게 “이 가족들과 함께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하고 조심스럽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 물음에 24명의 후원자가 응답해 주셨고, 총 약 220만 원이 모였습니다. 모인 마음은 한 폰도 남김없이 23가정에게 전달되었습니다.</p> <p>가족들은 복지관이 정해준 메뉴가 아닌, 아이가 먹고 싶다고 했던 바로 그 음식을 골라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단순히 음식만 놓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후원자 사장님들이 직접 제안해 주신 ‘가족 연결 미션’도 함께했습니다. 웃긴 표정으로 사진 찍기, 서로 얼굴 그려주기, 감사 편지 써주기, 가장 행복했던 순간 말하기. 소소해 보이는 이 미션들 안에서, 오랫동안 같은 식탁에 앉지 못했던 가족들이 눈을 마주치고, 웃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p> <p>한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와 단둘이 사는 저희는 외식하는 것이 쉽지 않았는데요. 덕분에 이번에는 아이가 좋아하는 메뉴를 선택해서 아이의 눈에서 행복이 반짝거리는 걸 보며 저도 함께 행복했어요.” 또 다른 가정에서는 아이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엄마,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라는 말을 건넸다고 했습니다. 오래도록 미뤄두었던 그 말 한마디가,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다고요.</p> <p>6월에는 함께해 주신 강릉시소상공인연합회 사장님들을 복지관으로 초대하여 나눔 증서를 전달하고, 가족들의 후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사장님들 중 몇 분은 식한 가족들에게 직접 선물도 챙겨 주셨다며 따뜻한 뒷이야기를 꺼내 주셨습니다. 지역 안에서 사람과 사람이 서로의 인부를 묻고 마음을 건네는 그 자리가, 복지관이 바라던 장면이었습니다. 이 사업이 마무리된 자리에는, 복지관의 이름보다 가족들의 웃음과 후원자들의 마음씨가 더 크게 남았습니다.</p>			
실적	저소득 아동가정 23가구 지원		



꿈글터, 봄을 쓰다.		손글씨 후원 캠페인	
목표	공부하는 어르신의 자기효능감, 사회적 제약 극복을 위한 후원모금	기간	5~12월
대상	문해교육(꿈글터) 프로그램 참여 어르신 24명	내용	손글씨 후원 캠페인, 한글교실 및 영어교실 운영, 시화전
사업설명 및 당사자·지역 변화			
<p>“글씨가 무슨 뜻인지 모르고 살았는데, 이제 뜻을 알게 되니 세상이 달라 보여요.” 어르신이 수업을 마치고 돌아가시며 수줍게 건네신 이 한마디가, 꿈글터 한 해를 돌아보는 가장 정확한 기록입니다. 강릉에는 학교에 가고 싶었지만 가지 못했던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집안 형편 때문에, 혹은 여자라는 이유 때문에 배움의 기회를 빼앗겼던 분들입니다. 고지서 앞에서 가슴이 두근거리고, 시내버스를 타다 어디가 어딘지 몰라 길에서 우셨다는 분의 이야기처럼, 글을 모른다는 사실은 오랫동안 삶 깊은 곳의 상처로 남아 있었습니다. 꿈글터는 그 상처 옆에 조용히 자리를 잡은 교실입니다.</p> <p>2025년 5월부터 12월까지, 복지관과 주문마루센터 두 곳에서 어르신 24명이 함께 공부했습니다. 한글교실과 영어교실, 한글반 나들이, 시화전으로 이어진 한 해 동안 어르신들은 한 자 한 자 꺾꽂 눌러 쓰며 스스로의 세계를 조금씩 넓혀 가셨습니다. 사전·사후 검사에서 문해역량 목표 달성도는 100점 기준 92점을 기록했고, 자기효능감은 9.7% 향상되었으며, 프로그램 만족도는 4점 척도에서 3.9점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숫자보다 더 선명하게 남은 것은 어르신들의 말씀들입니다. “복지관에 오니 친구들이 반겨주었다.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이 나의 힘이 되어 줬다”고 쓰신 어르신은 배움의 자리가 동시에 관계의 자리였음을 알려 주셨습니다. “내 이름을 내 손으로 쓸 수 있게 되어서, 배워서 속상한 것에서 당당하게 살겠다”는 글귀 앞에서, 우리는 이 교실이 단순한 문자 교육이 아니었음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담당 사회복지사가 어르신들에게 글쓰기를 처음 부탁했을 때, 어르신들은 글자의 ‘뜻’이 아닌 ‘모양’만 보고 따라 그린다는 사실을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 날의 당혹감을 솔직히 털어놓으면서, 담당자는 이후 어르신들이 부담 없이 쓸 수 있도록 예시본을 준비하고 곁에서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손사래를 치시던 어르신들이 이윽고 한 자 한 자 정성껏 채워주시는 모습에, 완성된 시화와 손글씨 작품 앞에서 활짝 웃으며 뿌듯해하시는 그 순간을 잊을 수 없다고 기록해 두었습니다.</p> <p>꿈글터가 이렇게 이어질 수 있었던 데는 지역 이웃들의 마음이 함께했습니다. 해피빈 손글씨 캠페인을 통해 약 80명의 후원자가 참여했고, 60여 명이 직접 손으로 쓴 응원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모인 후원금 약 430만 원은 어르신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배움을 이어갈 수 있게 해준 든든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지역의 서점과 음식점, 봉사단체들도 뜻을 보태 주셨습니다. 어르신들의 손글씨는 스티커, 책갈피, 엽서, 연필, 점착메모지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쓴 글씨인가요? 너무 예뻐서 몰라봤네요”라고 하시던 어르신의 눈시울이 붉어지던 그 순간은, 배움이 어르신 한 분의 자존감과 삶을 얼마나 단단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p> <p>울 한 해 꿈글터에서 빛난 것은 복지관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늦게나마 배움 일이 있어 좋다고 하신 어르신들 자신이었습니다.</p>			
실적	꿈글터 사업비 마련, 사례집 발간 등		



오늘도 안부를 들고 갑니다		한끼드림	
목표	식생활 지원		
기간	1~12월	대상	강릉 지역 내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어르신 및 복지사각지대 주민
내용	매주1회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식재료 지원 및 안부 확인		
사업설명			
<p>혼자 식사를 챙기기 어려운 어르신에게 하루 한 끼는 단순한 식사가 아닌, 하루를 버텨내는 중요한 일입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외출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식사를 거르는 일이 반복되며, 끼니를 챙기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끼드림은 이러한 어려움을 가진 지역 내 어르신과 복지사각지대 주민을 만나며 시작된 사업입니다. 처음 자원봉사자가 방문했을 때는 꾸러미만을 전달받거나 짧은 인사만 나누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매주 같은 시간에 찾아가 안부를 묻고 식재료를 전달하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점차 대화가 이어지고 관계가 형성되고 있습니다.</p> <p>한끼드림은 식재료를 전달하는 단순한 지원을 넘어, 안부를 확인하고 일상의 변화를 살피는 과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원봉사자는 단순한 전달자가 아닌, 어르신과의 관계를 이어가는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합니다. "오늘은 날씨가 좋네요", "요즘은 잘 지내셨어요?"와 같은 일상의 인사에서 시작된 대화는 평상시의 생활과 건강 상태에서 혼자 있는 시간의 외로움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습니다.</p> <p>이처럼 한끼드림은 식사를 지원하는 사업을 넘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일상을 함께 나누는 돌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식재료를 전달하며 시작된 관계는 안부를 묻는 연결로 확장되고, 다시 삶을 지탱하는 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5년을 마지막으로 한끼드림은 2026년부터 통합돌봄 체계로 이관·운영되어 우리 복지관의 한끼드림은 종료되지만, 그동안 한끼드림을 통해 이어온 안부와 관심, 그리고 관계는 형태를 바꾸어 지속될 것이며, 지역 안에서 서로를 살피는 따뜻한 돌봄으로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p>			
당사자·지역 변화			
<p>처음에는 자원봉사자와의 접촉을 부담스러워하며 짧은 인사만을 건네거나, 문 앞에 두고 가달라고 부탁하던 어르신이, 반복적인 방문을 통해 점차 대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매주 같은 시간에 찾아오는 자원봉사자의 방문은 일상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았고, 자원봉사자 대신 다른 사람이 전달하면 왜 오지 않는지 걱정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덕분에 끼니를 잘 챙겨 먹을 수 있었어",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와서 챙겨 주니까 너무 반갑고 고마워", "예전 같았으면 인사만 하고 갔는데 요즘은 안부도 서로 묻고 얘기를 많이 해" 이처럼 한끼드림은 단순한 식사 지원을 넘어 정서적 안정과 관계 연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p> <p>자원봉사자의 정기적인 방문을 통해 지역 내 돌봄이 필요한 가구에 대한 지속적인 안부 확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지원을 넘어 주민이 직접 참여하게 되면서 이웃을 살피는 관계가 점차 확장되고 있습니다. 또한 방문 과정에서 확인된 생활의 어려움은 복지관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며 추가적인 상담과 지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복지관과 지역주민 간 연결이 강화되었습니다.</p>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8건 / 122명(실인원) / 4,411명(연인원) · 자원봉사 연인원 1,101명 / 자원봉사 시간 3,370시간 50분 · 통합돌봄 지원사업 대상자 연계 지원 3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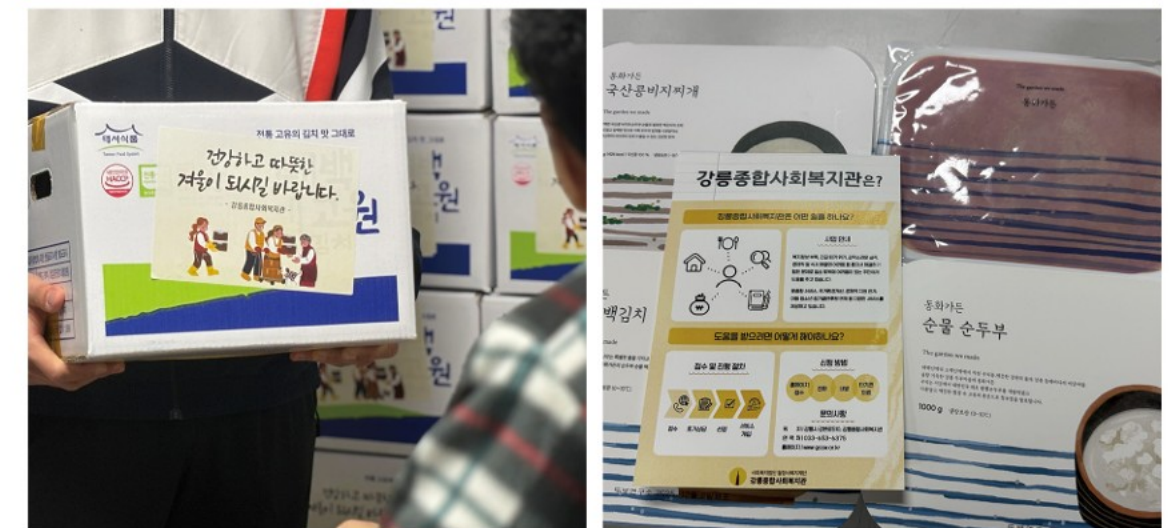


늘해랑돌봄빨래방			
목표	사회참여및 경제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며 사회기여도를 향상함		
기간	1월~11월	대상	만60세 이상 강릉시 거주자
내용	관내 취약계층의 생활환경 및 위생관리를 담당하는 이불빨래 서비스		
실적	189건 / 37명(실인원) / 6,127명(연인원)		

장수식당			
목표	결식을 예방하고 식생활 안정 도모		
기간	연중	대상	강릉시에 거주 중인 60세 이상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내용	지역사회 내 저소득 노인에게 제공하는 무료 중식 서비스		
실적	201명(실인원) / 3,106명(연인원)		



동절기 지역돌봄사업 (온정모아 등)			
목표	겨울철 난방용품 및 식사 지원을 통한 안정적 생활 환경 마련		
기간	11~12월	대상	지역주민 340가구
내용	난방용품(온열매트) 지원, 김장김치 및 밀키트 지원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난방지원 온열매트 120가구 · 온정모아 김장김치 160가구 · 순두부 밀키트 세트 50가구, 이불지원 10가구 · 지역사회 내 취약계층의 겨울철 식비 및 난방비 부담감 완화 		



가정의 달 “오! 해피데이”			
목표	사회적 고립감 완화와 가족 간 유대감 증진		
기간	5월	대상	강릉시 지역주민
내용	가정의 달 맞이하여 사회적 고립감 완화와 가족 간 유대감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및 행사 진행		
사업설명			
<p>기념일이 모여 있는 가정의 달, 누군가에게는 기다려지는 시간이지만 누군가에게는 평소와 다르지 않은 하루로 지나가기도 합니다. 독거노인과 한부모·조손가정, 그리고 어려움을 겪는 가정의 아동·청소년에게 가정의 달은 함께할 시간이 부족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다양한 연령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서로를 마주하고 시간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p> <p>특히 생계로 인해 자녀와 충분한 시간을 보내기 어려웠던 가정을 위해 외식자원을 진행했습니다.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식사를 나누는 시간은 자연스럽게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으로 이어졌습니다.</p> <p>이러한 시간은 가족이 함께하는 일상의 소중함을 다시 느끼고, 서로를 이해하고 연결되는 경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p>			
실적	연인원 372명 지원(외식지원 23가정 포함)		



명절정서지원서비스 (설날, 추석)			
목표	주민 간 교류를 통한 고립감 완화 및 사회적 유대감 증진		
기간	설날(1월), 추석(9월)	대상	강릉시 지역주민
내용	명절 시기에 사회적 고립감 완화와 주민 간 유대감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및 행사 진행		
사업설명			
<p>명절은 가족과 안부를 나누고 따뜻한 시간을 보내는 날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더 길고 조용하게 지나가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혼자 지내는 기간이 길어진 1인 가구와 이웃과의 교류가 적은 주민에게 명절은 외로움이 더욱 크게 느껴지는 시기입니다.</p> <p>명절정서지원서비스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역주민이 함께 모여 인사를 나누고 자연스럽게 이웃과 교류할 수 있도록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통놀이와 만들기, 나눔 활동 등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서로 어색했던 이웃 간에도 대화가 이어지고 웃음이 오가는 시간이 만들어졌습니다.</p> <p>함께하는 공간과 참여형 프로그램 속에서 주민은 단순한 참여를 넘어 서로를 알아가고, 혼자였던 시간을 함께했던 시간으로 기억합니다. 이웃과의 연결을 다시 만들어가고, 따뜻한 공동체로 이어지는 계기가 됩니다.</p>			
실적	연인원 설날 432명 / 추석 702명		



실천스토리

행복

고민의 첫 걸음, 눈부신 결실을 맺다		프로그램 전시회 (본관, 주문진)	
목표	배움의 결실을 맺고 이웃과 따뜻한 공동체 구성		
기간	2025. 9. 1. ~ 2025. 12. 19.	대상	강릉시 지역사회
내용	교육문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당사자가 직접 만든 작품을 지역사회와 나누고 공유하고자 했습니다.		
사업설명			
복지관에서 배운 솜씨를 마을 곳곳에 전시하여 참여 주민에게는 자부심을 이웃에게는 배움의 즐거움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서툰 첫걸음이 눈부신 작품이 되는 과정을 공유하며, 주민이 주인공이 되어 서로를 응원하는 마을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당사자·지역 변화			
복지관 문을 열고 들어서면 즐거운 노래소리와 알록달록한 색감의 작품들에 눈이 즐거워지곤 합니다. 바로 우리 이웃들이 일 년 동안 정성껏 준비한 작품들을 선보이는 프로그램 전시회 날입니다.			
사실 처음 연필을 잡거나 뜨개질을 시작할 때만 해도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하며 속스러워하시던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한 달, 두 달이 지나고 서툰 솜씨지만 나의 이웃의 작품을 칭찬하며 프로그램에 꾸준히 참여하다보니 어느새 멋진 작품들이 하나 둘 완성되었습니다.			
2025년 전시회는 단순히 잘 만든 결과물을 뽐내는 활동이 아닙니다. 돌보기를 쓰고 한 자 한 자 써내려간 어르신들의 글씨, 이웃들과 나눌 수 있게 한 땀 한 땀 엮은 작품 속에는 주민들의 열정과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배움의 즐거움을 스스로 보여준 주민 예술가 분들 덕분에 우리 마을이 더욱 풍성하고 따뜻해졌습니다.			
전시된 작품을 보며 주변 이웃들과 함께 구경 온 주민들은 부끄러워하면서도 “내가 했어!”라며 자랑스럽게 이야기 하곤 했습니다. 또 전시회를 구경하던 지역주민들도 “이렇게 멋진 작품들을 어떻게 만들었대요. 너무 멋있어요, 저도 하고 싶네요!”라며 누군가의 새로운 시작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자랑이고 시작이던 프로그램 전시회였습니다			



기획은 청년이, 공연은 이웃이, 관람은 지역주민과 함께!		문화가 있는 우리동네, 행사기획단	
목표	문화 접근성 향상, 지역사회 예술 재능기부 자원 발굴	기간	2025. 4. 11. ~ 9. 25.
대상	입암3주공 입주주민(강릉시 지역주민)		
내용	입암3주공 단지 내 주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문화, 예술 재능기부 공연 진행		
사업설명			
저희 복지관이 위치한 입암3주공 단지는 문화 예술 공연을 즐기기 위해서는 멀리 이동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도 이웃과 어울리기 좋아하는 주민들이 만날 수 있는 공연이 없을까?”하는 고민이 사업의 시작이었습니다. 다행히 우리 지역에는 자신의 재능을 나누고자 하는 이웃 예술가 분들이 계셨고 복지관 공간을 활용하여 주민들의 일상과 연결하고자 했습니다. 단지 내 공연을 이루는 과정에 있어서는 강릉 지역의 대학생, 청년들로 구성된 행사기획단의 도움도 한 몫 했어요. 단순히 행사를 돕는 봉사자를 넘어 행사를 직접 기획하는 주체자로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성덕동에서 진행한 문화 공연 뿐만 아니라 주문진에서 진행한 마루필름, 초록웃장, 연말행사까지 직접 활동 부스를 기획하고 운영하며 주민들과 눈을 맞추었습니다. 주문진읍의 어린이 친구들과도 함께 프리마켓을 운영하는 경험도 할 수 있었어요. 단순히 공연을 보고 행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닌 지역사회의 재능 기부자의 공연에 행사기획단의 역량을 더하고 주민들이 환한 미소로 답하는 과정에서 우리 마을의 세대 간 벽을 조금씩 낮출 수 있었습니다. 우리 복지관은 주민이 주체가 되어 행사를 만들고 청년이 이를 돕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구조를 통해 마을의 문화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당사자·지역 변화			
사업의 큰 성과는 따뜻한 주민들의 목소리였습니다. 공연을 관람하신 한 어르신은 “평생 텔레비전에서만 보던 공연을 집 앞에서 보니 가슴이 뻥 뚫린다”며 공연 후 이웃과 관람 소감을 나누는 시간이 진짜 즐거웠다고 전해주셨습니다. 행사를 직접 운영한 행사기획단 청년들은 “내가 기획한 행사에 함께 해준 주민들, 웃으며 고맙다고 하는 경험이 너무 기억에 남아요.”라고 고백했습니다. 재능기부자의 마음과 행사기획단의 기획력을 더해 우리 마을은 연결될 수 있었습니다.			



강릉종합사회복지관 교육문화 프로그램

목표	지역주민의 교육격차 완화 및 여가 활동 증진		
기간	2025. 3. 5. ~ 12. 24.	대상	강릉시 지역주민
내용	난타 프로그램 올림, 우리동네 뜨개방, 꿈글터 한글 영어반, 마카모에 노래 미술교실		

사업설명

안녕하세요, 주민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복지관에서는 이웃들과 함께 배우고, 웃고, 나누는 소중한 시간들이 가득했습니다. 네 가지 색깔로 채워진 우리들의 활동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마카모에: 노래와 그림으로 되찾은 활력

마카모에 교실은 언제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신나게 노래를 따라 부르고, 일록달록 미술 도구로 나만의 작품을 그리며 어르신들의 마음에도 예쁜 꽃이 피어났습니다. 혼자 계시는 적적함 대신 이웃과 함께하는 즐거움을 나누며 몸도 마음도 더 젊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난타 올림: 우리 마을을 깨우는 신명 나는 장단

열 분도 넘는 주민들이 모여 복채를 잡았습니다! 처음에는 박자 맞추기도 어려웠지만, 꾸준히 연습한 끝에 큰 무대(평생학습관 어울림 한마당)에서 멋진 공연까지 선보였습니다. 북소리에 스트레스를 날려 보내고, 무대 위에서 느낀 짜릿한 성취감은 참여하신 모든 분께 잊지 못할 선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동네 뜨개방: 한 땀 한 땀 사랑을 잇는 마음

뜨개질을 배우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정성껏 만든 작품을 이웃과 나누는 따뜻한 마음들이 모였습니다. 프로그램 시간이 끝나도 자리를 떠나지 않고 서로 가르쳐주고 배우며, 단순한 수업 그 이상의 돈독한 이웃사촌 관계를 만들었습니다. 정성으로 뜬 작품만큼이나 우리들의 사이도 촘촘하게 연결되었어요.

꿈글터: 배움의 기쁨으로 세상을 향해 한 걸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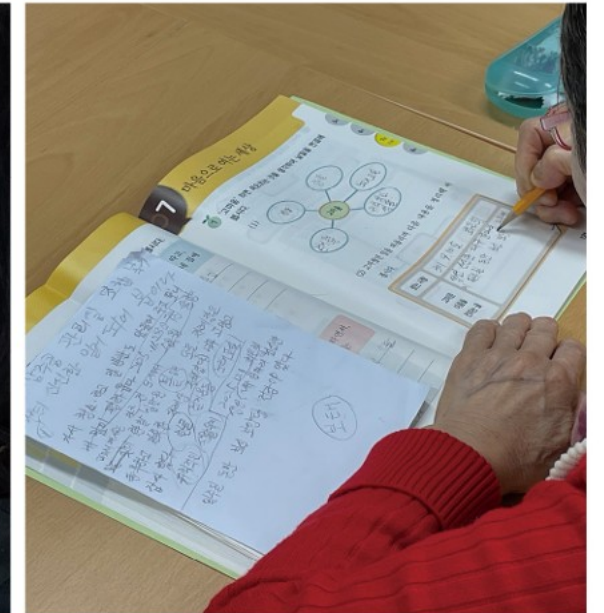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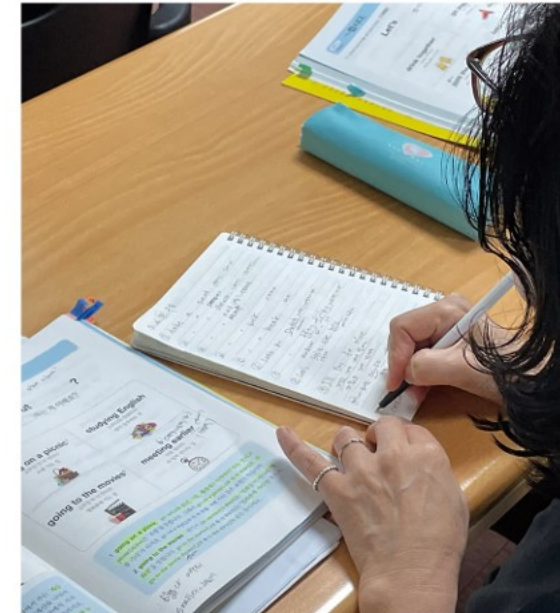
한글과 영어를 배우고 싶으신 분들이 모여 '꿈글터'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제는 간판을 읽고, 내 손으로 직접 쓴 글로 마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직접 쓴 손글씨로 캠페인에 참여하고 사회전에 작품을 내며 세상과 소통하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늦은 배움은 없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는 감동적인 시간이었습니다.

"함께해서 더 행복했습니다!"

이 모든 활동은 주민 여러분의 참여와 응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우리 복지관은 앞으로도 주민분들이 언제든지 찾아와 즐겁게 배우고,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따뜻한 마을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다가가겠습니다.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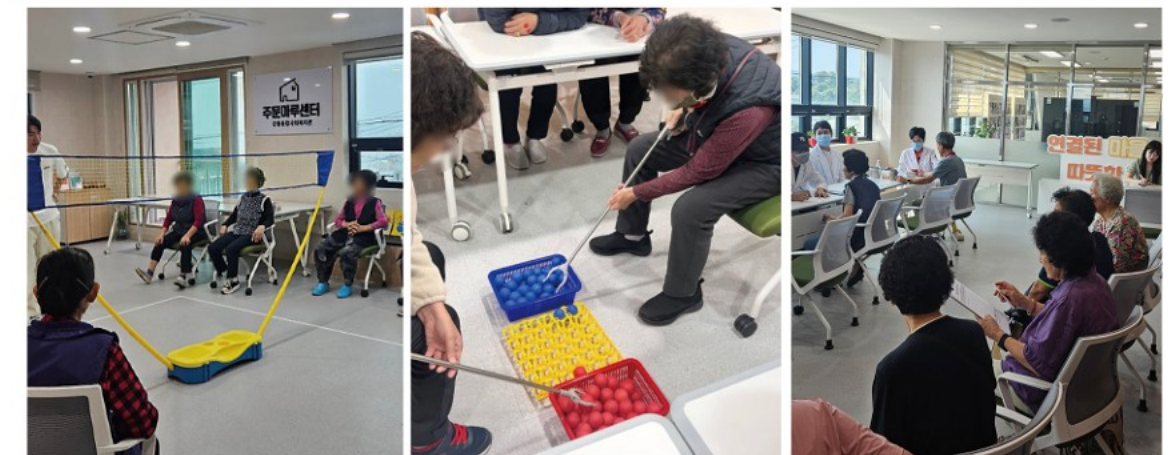
- 난타 프로그램 올림** 38건 / 15명(실인원) / 245명(연인원) / 평균 우물척도 20% 감소, 난타 공연 1회 진행
- 우리동네 뜨개방** 21건 / 8명(실인원) / 90명(연인원) / 평균 우물척도 10% 감소, 지역사회 뜨개 나눔 활동 1회 진행
- 마카모에 노래 미술교실** 50건 / 126명(실인원) / 490명(연인원) / 평균 우물척도 노래교실 3.4% 향상, 미술교실 6% 향상, 단지 내 노래대회 1회 이상 진행
- 꿈글터 한글 영어반** 79건 / 20명(실인원) / 424명(연인원) / 한글반 목표 대비 35% 향상, 학습 어르신이 만드는 굿즈 제작



주문마루센터(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사업) 교육문화 프로그램			
목표	· 심리적 안녕감 향상 · 공동체 의식 향상 · 자기효능감 향상 · 지역사회 재능기부 2회 이상		
기간	2025. 2. 17. ~ 2025. 12. 23.	대상	주문진읍 지역주민
내용	문화예술프로그램(주문마루 차차차, 에코브릿지, 화사한 인생, 그림화방, 등대울림합창단), 문해교육지원사업(꿈글더)		
사업설명			
<p>주문진1·2·5·7·8리 지역주민의 욕구 조사를 통해 문화와 여가 시설에 대한 필요성이 높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보며 지역주민이 원하는 문화, 예술 활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고,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지역사회로 나가 주민분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역주민분들이 원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반복되고 무료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원하셨습니다.</p> <p>어떤 프로그램을 원하시는지 여쭙봤을 때 미술 활동, 만들기, 한글 배우기 활동들이 나왔고 이러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총 5개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해왔습니다. 2025년에는 5개의 프로그램 중 합창 프로그램에서 나옴'트로트 노래'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총 6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이런 곳이 생긴 줄 몰라 집에서 무료하게 TV만 보던 지역주민도, 오전 노인 일자리가 끝나고 갈 곳이 없던 지역주민도 이제는 프로그램을 통해 모르고 있던 지역주민을 만나 친구로 발전하며 서로의 일상을 함께하고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고 이야기합니다.</p> <p>이곳에서 배우고 만든 것을 집으로 가져가 자녀와 손주에게도 보여주고, 전사회를 통해 내가 만든 작품에 대해 다른 지역주민과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의 손글씨로 만들어진 연필과 메모지를 보며 너무 살기 좋은 세상이라며 신기해하기도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그동안 쌓은 재능으로 선반장을 만들어 마을에 기부하고, 함께 모은 목소리로 아름다운 무대를 만들기도 하며 지역주민과 함께 나누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뿌듯하다고 합니다.</p>			
결과	<p>주문마루 차차차(트로트 노래 프로그램) 38건 / 23명(실인원) / 416명(연인원)</p> <p>에코브릿지(목공예 프로그램) 38건 / 17명(실인원) / 331명(연인원)</p> <p>화(花)사한 인생(꽃공예 프로그램) 38건 / 18명(실인원) / 466명(연인원)</p> <p>그림화방(미술 프로그램) 38건 / 19명(실인원) / 423명(연인원)</p> <p>등대울림합창단(합창 프로그램) 38건 / 39명(실인원) / 773명(연인원)</p> <p>꿈글더(한글문해교실) 38건 / 13명(실인원) / 299명(연인원)</p> <p>· 심리적 안녕감 8.6% 향상 · 공동체 의식 11.4% 향상 · 자기효능감 12.5% 달성</p>		



주문마루센터 정기 건강관리 프로그램			
목표	· 지역주민의 인지증진을 통한 치매예방 · 지역주민 의료접근성 향상 · 신체활동과 두뇌 운동을 병행한 체조활동으로 건강한 신체 유지		
기간	2025. 2. 17. ~ 2025. 12. 23.	대상	주문진읍 지역주민
내용	건강관리지원프로그램(치매예방교실, 인지체조교실, 찾아가는 건강보건소)		
사업설명			
<p>주문마루센터는 지역 어르신들의 인지기능 저하를 예방하고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치매예방교실'과 '인지체조교실'을 운영했습니다.</p> <p>처음에는 "이 나이에 무엇을 더 배우겠냐"며 참여를 망설이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으면 적적해서 말할 기회가 없다"는 한 주민의 참여를 시작으로 이웃들의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p> <p>프로그램은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안부를 묻는 다정한 인사로 문을 열었습니다. 함께 몸을 움직이는 인지체조 시간에는 웃음꽃이 피어났고, 기억력 활동 중 실수를 하더라도 "방금 한 것도 잊어버렸다"며 서로 웃어넘기는 분위기 덕분에 어르신들은 점차 부담 없이 활동에 몰입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손을 세밀하게 움직이는 소근육 활동은 "손이 덜 굳는 것 같다", "집에서도 해봐야겠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며 참여 의욕을 북돋웠습니다.</p> <p>시간이 흐를수록 어르신들의 태도는 달라졌습니다. 초반에는 조용히 자리를 지키던 어르신이 어느덧 먼저 정답을 맞으며 자신감을 보였고, 서로의 답변을 기다려주며 응원하는 배려의 문화가 형성되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뒤에도 함께 차를 나누며 담소를 이어가는 모습은, 이 프로그램이 단순한 교육을 넘어 안부를 확인하고 지지하는 소중한 일상의 일부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주었습니다.</p> <p>이러한 과정 속에서 치매예방교실과 인지체조교실은 인지기능 유지뿐 아니라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관계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르신들은 "여기 오는 날이 기다려진다"고 말하며 스스로 참여를 이어가고 있었고, 이는 지역 안에서 건강한 노년의 일상을 만들어가는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p>			
결과	<p>· 치매예방교실: 14건 / 16명(실인원) / 151명(연인원)</p> <p>· 인지체조교실: 14건 / 17명(실인원) / 176명(연인원)</p> <p>· 찾아가는 건강보건소: 10건 / 104명(실인원) / 115명(연인원)</p>		



늘푸름환경지킴이

목표	참여노인의 소득보장과 지역사회 공익증진, 사회참여 강화		
기간	연중	대상	65세 이상 기초연금대상자인 강릉시 거주자
내용	강릉시 전역 환경미화 진행		
결과	209명(실인원) / 29,287명(연인원)		

우리동네이웃돌봄단

목표	참여노인의 소득보장과 지역사회 공익증진, 사회참여 강화		
기간	연중	대상	만 60세 이상 강릉시 거주자
내용	1인 가구, 고립가구 등 증가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결과	84명(실인원) / 16,753명(연인원)		



강릉종합사회복지관
2025 사업보고서

실천스토리

연대

마을의 내일을 함께하는 사람들		주문마루 마을활동가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사회적 관계망 강화 · 마을활동가 마을공동체 강화 		
기간	2025. 2. ~ 2025. 12.	대상	강릉시 지역주민
내용	마을활동가 역량강화 및 간담회, 주민 만나기 및 사각지대 발굴 활동, 식생활 돌봄 지원, 주민환경 기획 프로젝트		
사업설명			
<p>올 한 해 주문진 마을활동가는 배움과 실천을 몸소 증명하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활동의 기초를 다지기도 했고, 매달 진행한 활동가 간담회는 마을의 현안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려는 활동가분들의 소통의 장이 되었습니다. 특히 '주민 만나기' 활동을 하며 마을의 골목 골목을 다니며 많은 주민분들을 만나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며 이웃 돌봄을 실천하기도 했습니다. 마을활동가의 작은 제안에서 시작된 사업이 많았습니다. '마루글방'을 통해 다문화 이주 여성들이 자녀의 손을 잡고 찾아와 함께 공부할 수 있었고, 우리 동네만의 작은 극장이 된 '마을 영화관'은 평소 문화생활이 어려웠던 이웃이 함께 커다란 화면 앞에 웅기종기 모여 앉아 함께 웃고, 울며 영화 한 편의 감동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수육데이' 행사를 준비하며 활동가분들이 직접 수육을 준비하고 지역주민의 식탁에 올리며 정을 나누는 시간은, 텅 빈 이웃의 마음까지 든든하게 채울 수 있었습니다.</p> <p>'초록웃장' 행사 또한, 마을활동가의 작은 제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입지 않는 옷을 모아 이웃에게 나눠주자"는 소박한 마음으로 처음에는 센터의 작은 공간에서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마을활동가의 진심이 입소문을 타며 나중에는 주문진읍사무소 앞을 가득 채울 만큼 큰 마을 행사가 되었습니다. 주민이 함께 모여 옷을 나누고 안부를 묻는 풍경은, 활동가들의 작은 아이디어가 마을의 거대한 온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p>			
당사자·지역 변화			
<p>"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해하시고 방문에 경계하거나 문조차 열어주지 않던 어르신들이 이제는 먼저 알아보시고 인사해주세요." "마을 영화관하면서 어르신들이 봤던 영화라도 다같이 보니 더 재밌는거 같다고 이야기해주신게 생각나요." "식생활하면서 어르신들이 늘 고맙다고 감사인사를 전하실 때마다 뿌듯했어요." "한 번밖에 하지 못해 아쉬웠지만, 다문화 이주 여성분들과 함께 한글 공부를 할 수 있던게 기억에 많이 남는 거 같아요." "함께 기획한 초록웃장이 처음에는 센터에서 작게 했지만, 나중에는 다들 노력해준 덕분에 정말 주문진 지역주민분들을 위한 행사가 된 것 같아 뿌듯해요." "주문진 지역에도 좋은 센터가 생긴 덕분에 지역주민분들이 많이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p>			
<p>어색함이 가득했던 동네에 반가운 인사와 웃음꽃으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혼자라면 무심코 지나쳤을 영화 한 편, 옷 한 벌의 의미가 '함께'하는 이름으로 마을의 큰 온기가 되었습니다. 주민들의 마음 속에 깊게 뿌리 내린 이 따뜻한 변화들이 앞으로 주문진을 더욱 살기 좋은 동네로 만드는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이 따뜻한 변화에 앞장서는 마을활동가분들과 앞으로도 함께, 온기 가득한 주민진의 내일을 가꾸어 나가겠습니다.</p>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2건 / 14명(실인원) / 373명(연인원) · 마을 현안(환경 개선, 마을 행사) 해결 2회 · 복지사각지대 27가구 발굴 및 지원 · 지역공동체 의식 17% 향상(P<0.01) 		



함께여서 즐거운 일상		유대한 라이프	
목표	당사자의 일상회복 및 자기 돌봄 역량 강화, 공동체 거점 공간에서 다양한 사회관계망 활동에 참여하여 사회적 고립감 완화		
기간	2025. 5. 12. ~ 12. 31.	대상	사회적 고립도가 높은 중장년 지역주민 14명
내용	자기돌봄(안부 확인, 특강), 관계형성(요리 프로그램), 공동체 활동(소모임활동, 나들이 등)		
사업설명			
<p>1인 가구 증가로 인한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고독사와 같은 사회적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장년층은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악화가 겹치며 사회적 관계망이 단절될 위험에 크게 노출되어 있습니다.</p> <p>유대한 라이프는 관계망 형성을 위해 복지관에 함께 모여 정기적인 프로그램과 체험 활동, 소모임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며 서로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요리공작소를 통해서 다양한 요리를 배우며 한 끼를 든든하게 해결했습니다. 평소 혼자서는 만들기 어려웠던 요리를 함께 배우고, 만든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소소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구성원들은 조금씩, 그리고 천천히 가까워졌습니다.</p> <p>일상로드맵은 구성원들이 원하는 주제를 반영해 특강 형태로 진행했습니다. 지난해 반응이 좋았던 목공 프로그램을 더 하고 싶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목공 특강 4회기를 진행했습니다.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냄비반침, 화분, 다용도꽃이를 직접 만들어보며, 손으로 무언가를 완성하는 즐거움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작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모르는 부분은 서로 도와주고 의견을 나누며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고, 함께 웃고 이야기하는 시간 속에서 더욱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p> <p>특히, 올해는 지난해 형성된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참여자 주도의 소모임 활동을 새롭게 진행했습니다. 각자 원하는 활동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며 활동 주제를 함께 논의하고 결정했습니다.</p> <p>“같이 영화를 보러 가고 싶어요.”, “날이 더우니 바닷가로 놀러 갈까요?”, “도시락을 싸서 놀러 가요!”, “명절이니까 윷놀이 한 판 합시다.”</p> <p>처음에는 이야기하는 것이 어색해 의견을 내지 않던 참여자들도 어느새 하고 싶은 활동을 다양하게 이야기하며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함께 결정한 활동을 즐기고, 이야기를 나누며 구성원들의 관계는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는 단순한 모임 참여를 넘어, 지역사회와 온기를 나누는 활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추석에 함께 모여 명절 음식을 만들어 지역주민들과 나누었고, 크리스마스에는 선물을 만들어 지역 내 아동에게 선물을 전달하며 함께 나누는 뿌듯함을 경험했습니다. 모임 참여자들은 “의미 있는 나눔에 다 같이 동참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좋았다”며 함께 하는 기쁨을 전했습니다.</p> <p>이제 유대한 라이프는 단순한 프로그램을 넘어, 서로의 일상을 함께하는 관계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참여자들은 주변 이웃을 모임에 초대하고, 일상 속에서 먼저 안부를 묻고 서로를 챙기는 모습을 보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함께 나누고, 서로의 삶에 관심을 기울이는 이 작은 변화들이 모여, 유대한 라이프만의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p>			

당사자·지역 변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참여하다 보니 이웃들과 많이 만날 수 있어서 좋았어요. 더욱 사이가 가까워진 것을 느끼고, 앞으로도 함께하고 싶어요.”

“혼자서는 외부 활동이 어려운데 유대한 라이프를 통해 평소 가보지 못한 다양한 곳을 다녀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함께 가니 더 즐겁습니다.”

“복지관에 나와 다양한 활동을 하는 덕분에 하루하루가 즐겁습니다.”

유대한 라이프 모임에 참여하며, 구성원들은 서로의 일상에 도움을 주고 받습니다. 집에 수리가 필요하거나 어려운 점이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하면 서로 나서서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도 합니다. 복지관에서만 만나고 끝나는 사이가 아니라, 밖에서 만나도 반갑게 인사를 나누며 안부를 묻는 이웃이 되었습니다.

참여자들은 프로그램을 넘어 모임이 지속해서 이어지면 좋겠다고 말하며, 앞으로의 모임 활동이 더욱 확장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구성원 간의 관계가 점차 깊어지고, 지속 가능한 공동체로 발전해 나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적

- 55건 / 14명(실인원) / 294명(연인원)
-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감 정도 사전(10.3점) 대비 사후(8.4점)
- 점수 18.5% 감소



취미 한 스펀, 관계 한 그릇		주민동아리 활동지원
목표	주민동아리 참여를 통한 사회적 관계 형성, 지역사회 나눔 활동을 통한 마을 공동체 활성화	
기간	4월 ~ 11월	대상 강릉시 지역주민(뜨개동아리, 다도동아리, 한국화 동아리)
내용	주민동아리 조직화 및 활동 지원	
사업설명		
<p>최근 우리 사회는 1인 가구 증가와 함께 이웃 간 관계가 점점 줄어들면서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 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점점 가까이 사는 이웃과 관계가 단절되는 사회에서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취미 기반의 동아리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p> <p>이번 주민동아리 활동지원 사업은 기존 뜨개동아리와 교육문화 프로그램(다도, 한국화) 참여자를 중심으로 자조모임을 조직하여, 총 3개 동아리 활동을 진행했습니다.</p> <p>뜨개동아리 '한울한울'은 월 2회 복지관에 모여 가방, 모자, 동전지갑, 인형 등 다양한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모르는 부분은 서로에게 묻고 배우며 한 울 한 울 완성해 나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일상을 공유했습니다. 손끝에서 시작된 작은 움직임은 어느새 서로를 잇는 따뜻한 연결이 되었습니다.</p> <p>다도동아리 '차담'은 차를 주제로 활동했습니다. 동아리 리더가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다도의 역사와 차의 종류를 함께 배우고, 차를 나누며 서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혼자 마시는 것보다 함께 차를 즐기니까 맛이 더 깊고 풍부한 것 같아요."라고 말하며, 차 한 잔의 여유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며 더욱 가까운 사이로 발전했습니다.</p> <p>한국화동아리 '한마음 그림'은 매주 화요일 분소 공간에 모여 붓을 들었습니다. 꽃과 나비, 그리고 일상 속에서 마주한 자연을 그림으로 담아내며, 서로 그린 작품을 공유했습니다. "혼자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 여럿이 함께하니 더 즐거워요."라고 입을 모아 말하며, 동아리 활동을 통해 함께 하는 시간의 즐거움을 알아갑니다.</p> <p>주민동아리는 단순한 취미 활동을 넘어 '함께하는 관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차 한 잔을 나누며 안부를 묻고, 맛있는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기도 합니다. 일상의 온기를 더하는 순간을 차곡차곡 쌓아가며, 참여자들은 서로에게 힘이 되는 이웃으로 자리 잡았습니다.</p> <p>이러한 관계는 나아가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으로 이어졌습니다. 참여자들은 어떤 나눔을 실천할지 정하는 것부터 필요한 물품 준비, 부스 운영까지 나눔 활동을 준비하는 전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p> <p>뜨개동아리(한울한울)는 지금까지 만든 작품을 판매하는 바자회를 열었고, 다도 동아리(차담)는 차 나눔을, 한국화 동아리(한마음그림)는 민화 예코백 만들기 체험(재능기부) 부스를 운영했습니다.</p> <p>참여자들은 "나눔 활동을 통해 의미 있는 활동에 동참할 수 있어 너무 좋았다.", "함께할 수 있어 기쁘다."는 활동 소감을 전했습니다. 특히, 뜨개 바자회에서 발생한 수익금 전액(97,000원)을 '산타 프로젝트' 후원으로 연계하여 나눔의 의미를 한층 더했습니다.</p> <p>주민동아리는 이렇게 '취미'에서 시작해 '관계'로, 그리고 '나눔'으로 이어지며, 참여자들의 일상에 따뜻한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p>		

당사자·지역 변화

“개인적으로 하기 힘든 나눔 활동을 함께 활동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함께하고 싶어요.”

“복지관 덕분에 이렇게 모여서 그림도 그리고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게 좋아요. 복지관이 아니었다면 모이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매주 정해진 시간에 갈 수 있는 곳이 생겨서 좋아요. 동아리 활동 시간이 기다려져요.”

참여자들은 동아리 활동을 통해 평소 알지 못하는 지역주민을 만나고, 공동의 관심 활동을 함께 진행하면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나아가 단순한 취미 활동을 넘어 나눔 활동을 실천하며 지역사회에 따뜻한 나눔 문화를 확산할 수 있었습니다. 혼자라면 어려웠을 일도 '함께' 이기에 더욱 의미 있고 뿌듯한 여정이 되었습니다.

실적

- 64건 / 13명(실인원) / 193명(연인원)
- 만족도 평균 4.4점(84.8점) 달성

다도동아리



뜨개동아리



한국화동아리



식생활 돌봄 지원			
목표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 및 공동체 돌봄 강화		
기간	2025. 5. 20. ~ 2025. 11. 18.	대상	강릉시 주문진읍 지역주민(주문12578리)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리법 교육 · 한끼식탁(한끼식탁, 일일사랑방) · 집밥레시피(마을돌봄터 물품 연계/ 요리모임 배달) 		
사업설명	<p>처음 주문진 지역주민 가정에 방문했을 때, 가장 마음에 남았던 것은 작은 식탁 앞에서 혼자 식사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주문진은 고령에 주민이 많고, 혼자 사는 가구와 고립된 가구가 많은 지역으로 혼자 식사하는 일이 자연스러운 환경입니다. "혼자 먹으니 대충 먹는다"며 웃으시던 어르신들의 말 속에는, 함께 식사할 누군가를 향한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민이 주민의 식탁을 살피는 '식생활 돌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p> <p>주문마루 센터 공유 주방에서 마을활동가들은 앞치마를 두르고 함께 모여 요리를 하고, 정성껏 만든 음식을 거동이 불편한 지역주민 가정에 직접 전달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어하시던 분들도 점차 마음을 열고, 어느 순간부터는 도시락 배달 시간을 기다리시며 반갑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작은 안부 인사와 짧은 대화가 쌓이며 자연스럽게 관계가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쌓여 매주 주문마루센터에는 주민들이 함께 모여 재료를 다듬고, 음식을 만들고, 한 끼를 나누는 과정 속에서 웃음과 대화가 오갔습니다. 일일 사랑방에선 '수육잔치'를 열었습니다. 마을 방송을 통해 삼삼오오 주민들이 오시고, 맛있게 식사를 하며 오랜만에 동네 잔치가 열렸으며 오랜만에 만난 주민들과 반갑게 인사도 했습니다.</p> <p>"혼자 먹을 때보다 같이 먹으니 더 맛있다"는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오고, 혼자였던 식탁은 함께하는 식탁으로 바뀌었고, 한 끼 식사를 통해 이웃과 이웃이 연결되는 변화가 만들어졌습니다.</p>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리법 교육: 9명(실인원) / 23명(연인원) · 한끼식탁: 17명(실인원) / 276명(연인원) · 일일사랑방: 31명(실인원) / 31명(연인원) · 마을돌봄터 물품 연계: 6명(실인원) / 79명(연인원) · 요리모임 배달: 10명(실인원) / 140명(연인원) 		

우리동네 주민 만나기			
목표	영구임대아파트(입암3주공) 입주민과 복지관 직원의 관계 연결 및 주민 간 소통 공간 마련		
기간	3월~12월	대상	영구임대아파트(입암3주공) 입주민 및 프로그램 이용자
내용	1촌돌봄카페 공간 활성화, 직원 산책 프로그램, 분기별 프로그램		
실적	연인원 165명		

강남동 마을관리소			
목표	강남동 마을관리소 운영을 통해 마을공동체를 활성화		
기간	2025. 1. 1. ~ 2025. 12. 31.	대상	강릉시 지역주민
내용	동네사랑방 운영, 프로그램, 생활 공구 및 복지용구 대여 등		
실적	· 동네사랑방 1,403명 · 생활 공구 및 복지용구 대여 271건		



주민모니터링단			
목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있는 사업 개선안 도출		
기간	2025. 6. ~ 2025. 12.	대상	주문마루센터 강사 2명, 마을활동가(지역주민) 2명
내용	주문마루센터 사업 모니터링 및 개선안 논의, 정기 자문회의(5회), 실무 관련 피드백 공유		
실적	5건 / 4명(실인원) / 19명(연인원)		



실천스토리

미래

우리동네 그린러너

우리가 살아갈 내일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기후위기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당장 우리 이웃의 일상을 위협하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특히 폭염과 한파 같은 급격한 기후 변화는 가장 취약한 이웃들에게 먼저, 그리고 더 가혹하게 찾아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혼자 아님니다. 환경을 지키고 이웃의 삶을 살피고자 하는 주민들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그린러너'라는 이름으로 함께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역사회가 주도하여 환경을 보호하고 기후위기에 맞서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발걸음, 그 가슴 벅찬 여정을 소개합니다.

마을을 위한 푸른 발걸음, 주민이 직접 이끄는 기본 좋은 변화

우리동네 그린러너 마을활동가



처음 우리동네 그린러너 마을활동가들이 모였을 때, "우리가 정말 환경과 이웃을 바꿀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량강화 교육을 함께 듣고 간담회에서 서로의 고민을 나누며, 점차 환경 실천의 주제로 단단하게 성장해갔습니다.

가장 빛났던 순간은 마을활동가들이 직접 기획하고 주도한 '지역사회 환경 캠페인'이었습니다. 간담회를 통해 '올바른 분리배출 체험', '구제리류 나눔부스 운영', '기후약자 발굴활동', '친환경 실천 서약', '나만의 냇지 만들기' 등의 다양한 캠페인을 계획하고 많은 지역주민들의 공감과 호응을 이끌어냈을 때, 우리의 작은 실천이 모여 마을을 바꾸는 큰 물결이 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우리동네 그린러너 환경의식 향상

활동 전

평균 4.16점



활동 후

평균 4.38점

약 5.29% 향상

예방적 환경교육 및 인식개선 활동

우리가 겪고 있는 기후위기는 결국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내일의 문제입니다. 환경 보호는 거창한 구호보다 어릴 때부터 자연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을 일상에서 실천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강릉시 내 4곳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찾아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지구의 소중함을 재미있게 전달했습니다. 단순히 이야기를 듣는 데 그치지 않고, 가정과 교실에서 직접 실천할 수 있는 빙고 미션을 더해 우리 동네 가장 어린 '꼬마 그린러너'들을 양성하는 뜻깊은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교육 종료 후 교육기관 담당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아이들이 먼저 환경 관련 뉴스를 같이 보자고 제안하거나, 다먹은 요플레 용기를 스스로 씻어 재활용하려는 모습이 나타나는 등의 긍정적인 행동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친환경 만들기 프로그램



환경 보호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막상 일상에서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쓸모를 다해 버려질 뻔한 물건들에 다시 숨결을 불어넣는 과정을 통해 자원 순환의 가치를 직접 체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상반기에는 버려지는 커피박과 양말목 등으로 생활용품을 만드는 '에코브릿지'를, 하반기에는 일회용기와 페트병을 활용해 꽃과 식물을 심는 '화사한 인생'을 진행했습니다.

이웃들과 모여 앉아 웃고 떠들며 친환경 물품을 만드는 시간은, 단순한 만들기 활동을 넘어 우리 마을의 자원 순환 문화를 만들어 가는 기본 좋은 소통의 장이 되었습니다.

우리동네 그린러너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기후위기가 불러온 유례없는 폭염과 매서운 한파는 넓은 집에서 홀로 계절을 나아 하는 우리 이웃들에게 생존을 위협하는 재난입니다. 특히 고령이거나 질환이 있고,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아 사회적 지지망마저 부족한 가구에게 기후위기는 더욱 가혹합니다. 우리는 기후재난으로 삶의 터전을 위협받는 이웃들에게 단순히 물품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안전하고 따뜻한 주거 공간을 제공하여 일상의 인위를 지켜드리고자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낡은 창문 틈으로 매섭게 파고드는 겨울바람을 막기 위해 벽면 단층 교체 공사를 서둘렀습니다. 갑작스러운 우천으로 인해 하루 일정이 미뤄지는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무사히 새 창문을 달아드린 날 방 안은 몰라보게 아늑해졌습니다. 공사 후 어르신과 마주 앉아 창문 틈으로 들어오던 찬바람은 얼마나 줄었는지, 창가 쪽에 앉아 계시실 때 느낌은 어떠신지 다정하게 여쭙었습니다. 집 안이 따뜻해지니 생활 모습도 활기차게 변하고, 으스스하던 감기 기운이나 관절 통증도 한결 나아졌다는 이야기를 나누며, 우리가 달아드린 것은 단순한 창문이 아니라 기후위기로부터 이웃을 지키는 '안심 방패'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 목표**
- 지역주민의 주도적 참여를 통한 지속 가능한 공동체 구축
 -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

- 내용**
- 우리동네 그린러너 마을활동가 발굴, 조직화 및 역량강화
 - 마을활동가 및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환경캠페인 기획 및 운영
 - 기후약자 발굴, 방문 상담 및 주거환경개선
 - 폐자원을 활용한 친환경 만들기 프로그램 운영
 - 미래 세대(어린이집, 유치원) 대상 예방적 환경교육 실시

- 결과**
- 기후약자 발굴 및 연계 지원: 52건 / 52명(실인원) / 52명(연인원)
 - 마을활동가 발굴 및 역량강화: 29건 / 386명(실인원) / 514명(연인원)
 - 지역사회 참여형 환경 프로젝트: 11건 / 25명(실인원) / 104명(연인원)
 - 에너지 효율 개선 프로그램: 2건 / 2명(실인원) / 2명(연인원)
 - 기후변화 인식 개선 및 홍보: 11건 / 124명(실인원) / 234명(연인원)

마을의 안전한 골목과
평안한 일상을 위해

마을재난대응복지사업

- 목표**
- 재난안전약자 보호체계 구축
 - 안전약자 재난 대응력 향상
 - 마을재난대응 지도 제작

**사업
개요** 지역주민과 마을활동가의 목소리를 토대로 직접 찾아가 우리 마을의 위험 요소를 파악하여 지도를 만들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대피로를 함께 가보기도 하며 재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기간 7월 ~ 11월 **대상** 주문진읍 지역주민

내용 지역주민 현황조사, 마을재난대응 워크숍 및 간담회, 안전역량강화, 마을 안전지도 제작

사업설명

7월부터 시작된 마을재난대응복지사업은 재난 상황에서 스스로 보호하기 어려운 안전약자가 많은 주문진 등대마을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우선,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듣고자 지역주민 현황 파악을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처음 조사를 나서기 전 재난에 대해 생각할 때 산불같은 화재나 지진에 대해서만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등대마을 지역주민은 산불이나 화재가 아닌 강우, 폭우, 폭설과 같은 재난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좁은 골목길과 높은 경사로가 많고,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폭우와 폭설이 올 때면 이동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이야기해주셨습니다.

이를 피할 수 있는 대피소도 문제였습니다. "대피소가 어디 있어요? 몇 십년을 살아도 알려준 적이 없는데",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알고 있어도 너무 멀면 못가지 뭐." 와 같이 재난이 일어났을 때 어디로 가야하는지나 어떻게 행동해야하는지를 전혀 모르고 계시는 지역주민분들이 많았습니다. 이에 강릉시자원봉사센터와 연계를 통해 재난안전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그동안 모르고 있던 대피로와 대피소의 위치, 행동요령에 대해 교육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마을의 위험요소를 표시하여 위험 상황을 예방하고 대응해보자는 마을활동가의 의견이 제시되었고, 이에 직접 마을 곳곳을 누비며 위험 구간을 사진으로 기록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마을만의 '마을재난대응지도'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주민의 눈높이에서 함께 만든 이 지도가 마을의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이정표가 되길 기대합니다.

당사자·지역 변화

- “그래도 이제는 어디로 가야하는지 알고, 어떻게 하면 되겠구나 생각이 드니 도움이 된거 같아요.”
- “우리 동네에 대피소가 있다 있다 말로만 들었지 어디인지는 몰랐는데, 이렇게 알게 되니 다행이네요.”
- “다른데서는 관심도 없는데 이렇게 나와서 봐주고 하니 너무 감사하죠. 좋은 일 해주셔서 감사해요.”

좁고 가파른 골목을 비탈 순 없었지만, 주민들은 교육을 듣고 스스로를 보호하는 법을 배웠고, 함께 지도를 그리며 서로의 안부를 묻는 계기가 생겼습니다. 이번 사업은 단순 재난을 대비하는 것을 넘어 "재난 앞에서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에 새로운 의미와 동력을 만들어 냈습니다.

마을의 안전한 골목과 평안한 일상을 위해

실적 | 마을재난안전지도 제작(주문 1, 2, 5, 7, 8리)



강릉 가뭄사태대응 복지사업

목표	재난 대응 심리적 안전망 구축과 가뭄 대응		
기간	9월	대상	기후위기 취약계층 등
내용	생활안정키트 배부, 생수배분 자원봉사자 연계 등		
실적	생활안정키트 300가구 지원, 강원특별자치도지사 표창 수상		



11 함께 걷는 이웃들

자원봉사자 명단

개인 김성진 김성진 김원섭 김유영 김인숙 김재근 김종현 김진덕 김희옥 박남선 박문경 박서연 박영옥 박춘명 배후린 신광욱 윤준영 윤준호 이기욱 이미자 이상미 이호규 이호규 임순득 전남진 정동하 정명숙 정소원 정영미 정은숙 정현숙 정혜숙 조연숙 채미옥 최근환 최경자 최승욱 최우현 최완용 최윤주 최인석 **LGU+** 김명성 장재현 조영근 최상인 최인석 최중화 **강동면생활개선회** 강금숙 권선자 김명희 신금순 용귀필 이정운 최순규 최정자 **강릉관광개발공사** 김도현 박가령 윤수정 김태연 최승찬 **강릉나누미** 김복순 김오열 이경옥 이미경 장순화 홍윤경 **강릉라이온스클럽** 김병준 백현달 윤석현 이상수 홍경표 **강릉시정모니터단** 김명순 김형섭 박경하 서모래 송옥자 이미영 이경애 윤정철 정종술 **강릉청향회** 권혁동 김기문 김무영 김동일 김수영 김원일 김인숙 김정옥 김정화 김주갑 김지윤 김창호 남경월 남상석 박경희 박귀철 박미숙 박정심 박현아 안상인 안성욱 유덕열 이은옥 이흥철 전선희 정용선 정홍교 주진수 최승필 최은희 최춘재 황영래 이동진 장주희 이형란 최영남 신우근 엄정수 이경훈 김주연 임태건 최혜정 주형돈 윤지희 이은조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릉지사 강금숙 권선자 김기호 김나임 김도건 김솔 김윤아 김향명 박사울 서진현 안선민 엄다희 오가영 양혜민 이기복 이상덕 전인철 정운봉 최은주 최지혜 **국민연금공단 강릉지사** 고선민 김나현 김대한 김영희 김윤희 김지현 박동훈 유세경 이규태 이준 이태환 임수현 진한결 한태준 허윤주 흥진 **국민의힘** 김용래 박해웅 송준환 이근태 이기성 이현정 차근영 차소현 홍승표 홍의진 **그린러너마을활동가** 권선자 김경숙 김경자 김진문 박명순 박서연 이병용 정순이 정은숙 정혜숙 조용숙 최경애 최윤희 **농협주부대학** 권순우 김덕자 김명희 김경자 김정희 남광자 박규자 변봉산 신경희 윤경옥 이성자 이상숙 전복순 정선숙 조명신 최귀옥 **도시동생활개선회** 권원서 김용미 어명희 이시연 조경숙 **도담 서포터즈** 박종현 고은혁 김민호 김시훈 박재성 엄태연 전명준 홍승민 **동방적십자봉사회** 김경자 권영미 김명수 김미영 김미진 김순희 김정남 김정미 김중영 김희원 류추국 문금희 박경미 유호남 전성주 정의옥 정홍교 장인숙 최옥자 최은경 허영희 안병화 **매일적십자봉사회** 강나현 구근숙 권나그랑 김경수 김상표 김영옥 김진용 안혁진 윤금순 윤석동 이경희 이소은 이은주 장서운 장은숙 정윤희 정윤희 주종현 최원경 최현옥 한윤정 함지원 홍덕기

보탬에 권창동 김무기 김홍수 김현미 김현주 김호길 민준홍 박선희 이석철 이승연 이상표 이현 임용호 임춘화 장재록 전수창 정한림 최문순 최상선 최창재 최호순 홍종진 **비비밴드** 강정자 김복순 김미라 김은희 김현숙 노행민 박낙섭 박동주 손병선 손병성 오은희 오창기 우경희 이종열 홍영숙 **사다리봉사단** 김순화 김진문 나순자 남명숙 박경화 박옥화 이병용 이숙재 장용순 조규희 조성숙 최희옥

사단법인 산불방지캠페인 구선미 전승운 **사천면생활개선회** 권순희 김남미 김미숙 김영숙 김순옥 박정자 임명옥 이해숙

사천적십자봉사회 박순정 김미경 김보겸 김순영 박상자 서경애 이미자 이해숙 전선옥 정남의 최경순 최은자 홍수복

성덕동자율방범대 김남수 김지숙 김진숙 변소정 변형노 윤석휘 **성덕동동장협의회** 강장훈 김명철 김종목 김재원 김향자 노경숙 맨나연 반극문 박기철 박동근 박춘명 반상원 변상원 손이지 양진영 유인호 윤석인 윤오준 이복섭 이은희 이상용 이수연 이숙재 이재강 이재학 이창우 이한영 임옥자 전만수 정순교 조규옥 채동욱 채정희 최수옥 최영미 한광현 홍성환 황경남 황두주

세일클로버 김미경 김민지 김은실 김진순 양영희 황명숙 **소리나눔회** 김은숙 김희자 남건희 바다원 이미자 정인경 홍정숙

솔향로타리클럽 강은진 광정진 김동숙 김정옥 문진원 박교민 박미숙 박영미 변효정 엄연심 오복순 왕수비 이승미 이현정 장민경 정지인 지혜 탁승연 **솔향적십자봉사회** 강장훈 권석오 김남순 김남혁 김문영 김선영 김소연 김승기 김정숙 김인호 문수성 박동주 사기화 양광규 양순옥 유난숙 이은숙 이희서 한혜자 홍성덕 **송정동생활개선회** 백복녀 신미하 윤금순 최선옥 홍순자 **소원트(아라한)** 김소연 김지연 김지운 박은수 양예달 조윤아 지소연 최효선 **오죽적십자봉사회** 강명분 김미영 김영란 김영순 남춘남 박여경 송옥자 신은순 신진섭 윤명숙 이근익 이규자 이순환 이승현 이은진 장임선 최순희 최의정 함경순 홍성희 **옥계면생활개선회** 김금순 김순자 김옥자 유순자 이옥자 최순희 **왕산면생활개선회** 김진석 박재남 이영희 차해영 하미자 한규춘 **울곡로타리클럽** 김남희 김동학 김규성 김진용 김학래 박재원 이용기 정연철 **임영라이온스클럽** 고영기 김도연 김미정 김영운 김영희 문경미 양윤미 유봉자 윤임자 이상미 이은서 이지영 장경희 정규성 정승빈 조나은 지순희 최부경 최종선 함영란 **정나눔이** 권정미 김남숙 김종오 김주희 나순자 박옥희 박진용 박현정 신윤정 이용호 이주영 이춘자 최규영 최영아 최옥영 홍유신 **주문마루마을활동가** 김명순 김보경 김선하 김숙자 김순자 김옥기 김희자 나인재 남미옥 박경애 박미희 오현정 이사라 이영애 정종술 최윤희 **주문진생활개선회** 김순자 김숙자 박경애 박미희 유운순 이영애 조옥연 **참빛영동도시가스** 김효준 심종원 심진보 정민준 **해바라기** 강우경 박인숙 방경혜 배순재 정미영 정인엽 최경순

행사기획단 김가윤 이선우 이정은 함성민 **희망적십자봉사회** 김남분 김윤혜 김정해 김주현 김천영 박순숙 송찬호 심미자 이육남 전용식 전희세 지장배 홍현호

후원자 명단

(사)해피기버 (주)대화검속기 (주)블랭크코퍼레이션 (주)퓨리텐 (주)한국가스기술공사 강원지사 GS25 강릉강남점 kt KT그룹희망 나눔재단 강릉관광개발공사 강릉모래내한과 영농조합법인 강릉시의회 강릉시자원봉사센터 강릉시청 강우경 강원축산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계민호 고윤하 공신상회 공현지 락한규 구병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강릉사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릉지사 국민연금공단강릉지사 굿리더아카데미 총원우회 권기원 권지윤 권창동 권창호 권혁문 근로복지공단 사회봉사단 김건우 김경숙 김경숙 김길윤 김다빈 김대래 김도연 김도한 김동근 김명수 김명순 김명옥 김무기 김문란 김민지 김복순 김봉준 김선하 김성기 김세중 김숙자 김승희 김연명 김영기 김용래 김용호 김원섭 김유진 김옥수 김은숙 김은숙 김정은 김종대 김준태 김지영 김진 김진문 김진희 김천영 김춘기 김태경 김현기 김현주 김형근 김형남 김혜경 김호길 나창호 남미옥 노옥순 농업회사법인 동화기든 두부연구소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주)목촌미트플러스 농협중앙회 강릉시지부 대림버스 주식회사 대한불교조계종관음사 대한불교조계종은하사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 류성은 마리아지역아동센터 문재영 미자네 밥포차 민경환 민준홍 만현식 박기령 박경남 박경자 박미희 박서연 박선균 박성용 박순화 박영일 박영희 박용중 박정숙 박철호 박향숙 박현정 반대연 방준석 백나은 산타후원캠페인 선미한과 손병광 손오덕 솔향로타리클럽 솔향적십자 송명근 송옥자 송정김종현빵공장 송지용 신광옥 신용보증기금 신재림 신철용 신화라 심건섭 심오섭 심윤자 심춘식 심화섭 아궁이 안상규 안상현 알파문구센터 양영희 에스-오일 오정미 오준택 오현근 옥정희 완미족발 용대성 윤승옥 원성운 유정애 이금영 이기영 이기욱 이기환 이미남 이미숙 이보하 이상무 이상욱 이상준 이상표 이서백 이선숙 이성우 이승연 이시연 이은주 이음더봉사단 이재원 이정희 이재형 이종열 이준호 아청원 이한영 이현 이호준 뜨개동아리 초록웃장 임미현 임영라이온스클럽 임용호 임용호 임춘화 장경희 장수민 장숙영 장재록 장희비 재단법인 시멘트산업사회공헌재단 전미연 전선옥 전수창 전승원 전영옥 정나눔이 정병용 정순이 정영교 정의옥 정인영 정정희 정혜숙 정혜정 조경화 조나은 조성녀 조영학 조태란 조향순 주식회사 동화기든원조썬 주식회사 산아들 갑부도시락 강원대리점 주식회사 삼교리 주식회사 상화애프앤비 주식회사케이티서비스남부 징검다리후원회 차경호 참빛영동도시가스 주식회사 최돈삼 최미정 최상률 최상문 최상선 최성진 최성섭 최순희 최승찬 최윤희 최은경 최은자 최인석 최종희 최진임 최태영 최혜경 최호순 카페스프라우츠 통계청강릉사무소 페이머스파머스 푸드뱅크 한국가스안전공사영동지사 한국도로공사 사회봉사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강원본부 한국부동산원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한두호 한일카페트 해피빈 행복한꽃님이 허남선 현대자동차(주) 강릉하이테크센터 홍기숙 홍성희 홍순란 홍영숙 홍차현 황의선 황제상 황철주 그 외 익명의 후원자님들

※자원봉사자, 후원자 명단은 VMS-1365 및 희망이음 시스템 기록을 기준으로 정리하였습니다.



12 후원금·품 보고

후원금 현황

수입

구분	수입액(원)	
전년도 이월금	73,300,105	
예금이자 수입	63,957	
지정후원금	운영후원금	-
	결연후원금지원	11,200,000
	프로그램지원	190,385,400
비지정후원금	운영후원금	-
	프로그램지원	20,658,000
잡수입	잡수입	1,002,006
계		296,609,468

지출

관	항	목	지출액(원)
사무비	인건비	제수당	-
		여비	-
	운영비	수용비 및 수수료	436,655
		공공요금	4,200
		차량비	-
		기타운영비	-
		기관운영비	-
사무비	업무추진비	회의비	-
		기타운영비	-
재산조성비	시설비	시설비	-
	자산취득비	자산취득비	-
	시설장비유지비	시설장비유지비	-
사업비	사업비	사업비	186,693,730
잡지출	잡지출	잡지출	19,761,719
이월잔액			89,713,164
계			296,609,468

후원품 현황

수입

구분	수량	환산 기부가(원)
도서	4	375,500
사무용품	46	151,200
상품권(이용권)	268	4,040,000
생활용품	5,877	29,794,490
식품	11,051	69,320,890
잡화	297	7,065,300
계	17,543	110,747,380

지출

배분처	사용수량	환산 기부가(원)
사무비품 구입	347	2,770,000
사용기간 만료	10	500,000
서비스당사자 지원	6,785	41,525,720
아동외식지원사업	39	594,800
외부기관 지원	7,627	26,823,384
장수식당(무료급식)	1,989	39,632,876
주문마루센터(마을돌봄터)	558	5,510,720
차량운영	20	1,000,000
청소년가요제	3	60,000
프로그램 운영	880	5,564,200
프로그램실 환경개선	1	84,490
한끼드림	250	3,176,600
계	18,509	127,242,790

13 기관개요

운영법인 개요

구분	내용
법인명	사회복지법인 월정사복지재단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신대학길 42, 2층
설립허가일	2007년 5월 10일
설립목적	대한불교조계종 중지와 중통을 봉대하고 중헌 중법을 준수하며 부처님의 자비사상과 중생구제의 원력을 사회복지사업을 통하여 실현하고 부교계 물적·인적자원을 개발하여 활용함으로써 지역사회복지의 지원과 발전에 이바지하여 국민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운영법인 이사회

구분	내용
이사장	남광봉
이사	김하남, 김효종, 김종민, 임수우, 구영호, 황주연, 전승호, 양일모, 심서훈, 심재범
감사	이영재, 현병화

강릉종합사회복지관 개요

구분	내용
허가규정	사회복지사업법, 강릉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대표자	관장 김미현
설립일자	1995년 1월 20일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변로510
기부금유형	일반기부금(지정기부금)
시설유형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관)
주요사업	사례관리, 서비스제공, 지역조직화, 조사연구, 노인일자리사업

시설현황



강릉종합사회복지관 본관(성덕동)



주문마루 (주문진)



미디어촌 5분소 (홍제동)



마을관리소 (강남동)

31년간 복지관이 걸어온 길





커피 한 잔으로 마을 변화에 함께해요

소액으로 정기 나눔에 동참하고, 평소 커피 한 잔 하고 싶은 사람에게 나눔의 가치를 전해보세요.

참여기간 연중 수시

후원금액 월 3,000원부터 소액 참여 가능 또는 기존 정기후원자는 3천원 이상 후원 증액

신청방법 복지관 방문 신청 / 전화문의 / 홈페이지 신청 포스터 우측 상단 QR 스캔

문의사항 033 · 653 · 6375 나눔담당자



후원 참여 시 기프티콘을
원하는 날, 원하는 분께
대신 전해드려요.

정기 나눔에 참여하면 5,000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보내드립니다.

기프티콘은 나 자신이나 평소 커피 한 잔하고 싶던 가족 · 친구에게 대신 전해드려요.

· 기프티콘 발송을 위해 받을 대상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려주세요. 최소 2개월 이상 정기후원을 유지해 주시면 3개월 이후부터 발송하겠습니다.
· 강릉종합사회복지관 일반기부금 단체로 기부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후원금은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활용합니다.

나눔신청서

이름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주민번호 앞 6자리	
이메일			
주소		비상연락처	

1. 후원 방식에 체크해주세요. 정기후원 한번후원 물품후원

2. 후원금액에 체크해주세요. 1만원 2만원 3만원 5만원
 10만원 기타 ()

3. 후원방법란에 정보를 작성해주세요.

CMS자동이체

정기이체일	매월	<input type="checkbox"/> 15일	<input type="checkbox"/> 25일	<input type="checkbox"/> 기타 ()일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생년월일		

계좌 직접 입금

후원계좌명	농협은행 255-01-484531(강릉종합사회복지관)
-------	-------------------------------

4. 기부금 영수증 신청 정보를 작성해주세요.

예 (주민등록번호:) 아니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기부금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개인정보는 본 목적에만 사용됩니다.
주민등록번호 필수. 별도로 영수증을 받으실 분은 033-653-637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내용과 같이 강릉종합사회복지관 후원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2026. . .

신청인: (서명) / (14세 미만) 법정대리인: (서명)

강릉종합사회복지관은 후원 서비스 진행을 위하여 아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하고자 합니다. 자세히 내용을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원 진행을 위해 강릉종합사회복지관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후원 수입 사용 관리, 영수증 발행, 후원 집행 안내, 납부 확인 등
- 항목: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성별, 이메일(선택), CMS정보(선택)
- 기간: 후원회원 가입일로부터 회원 탈퇴 시 까지
- 선택정보를 기재하지 않으실 경우 기부금영수증 발급, 후원 안내 등의 서비스를 제한될 수 있습니다.

후원 진행을 위해 강릉종합사회복지관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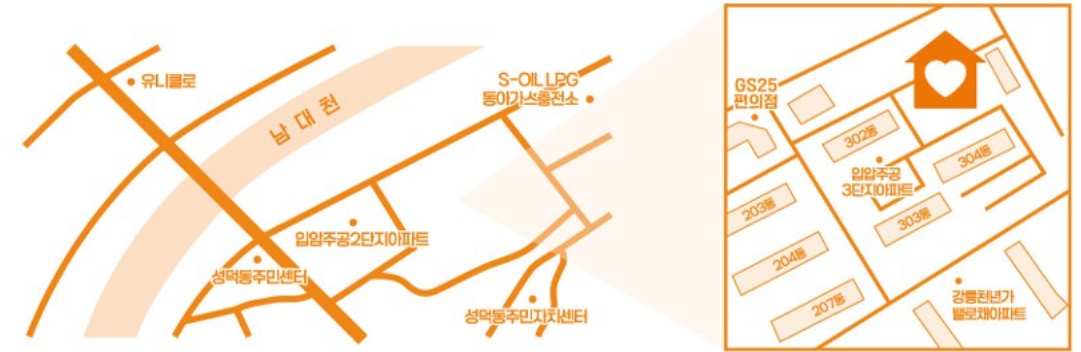
- 개인정보 제공 목적: 후원 안내 발송
- 제공받는자: 문자메시야
- 제공하는 항목: 연락처
- 기간: 발송 시점

강릉종합사회복지관 안내를 위하여 개인정보 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문자 이메일 전화 주소(우편)

강릉종합사회복지관 2025 사업보고서

복지관 오시는 길

강릉시 강변로 510 입암 3주공 단지 내 관리사무소 건물 2층



문의방법

강릉종합사회복지관

- ☎ 033. 653. 6375
- ☎ 033. 653. 6376
- ✉ gssw6375@gmail.com

늘해랑돌봄빨래방

- ☎ 033. 653. 8985
- ☎ 033. 653. 8986

주문마루센터

- ☎ 033. 661. 6375

강남동 마을관리소

- ☎ 033. 642. 6375

이용시간

강릉종합사회복지관 평일 09:00~18:00

강남동 마을관리소 평일 10:00~17:00

미디어촌 5단지 분소 평일 10:00~17:00

주문마루센터 평일 10:00~17:00

마을의 따뜻한 소식 보러가기



복지관 네이버 블로그



복지관 홈페이지

강릉종합사회복지관
2025 사업보고서

Community Impact

발행일: 2026. 4. 30.

발행처: 강릉종합사회복지관 | 발행인: 김미현

편집인: 전근홍 | 누리집: www.gssw.or.kr | 이메일: gssw6375@gmail.com

대표전화: 033-653-6375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변로 510, 복지관 2층

디자인 : 봄컴퍼니

강릉종합사회복지관
2025 사업보고서
Community Impact



사회복지법인 월정사복지재단
강릉종합사회복지관